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2일(음력 3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626 호

“종교계도 납세의무 지켜야”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시민연대 발족 “투명운영 위해 필요”…종교계 반발

임대업이나 식품가공업 등을 하는 사찰, 매월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교회 등은 언제까지나 ‘세금 치외 법권 지역’일 수 있을까?

종교 법인에도 납세의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이 막을 올렸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고은광순 홍명한의원 원장, 박광서 서강대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여명은 4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이하 종추련)를 발대식을 가졌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종교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다.

종추련은 이날 발대식에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법인이 존재하면 그 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있어야 한다”며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어 종추련은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많은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다. 연소득 10억 원이 넘고 대형차를 타며 사치스런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헌법 조항을 무시하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의료기관, 양로원, 고아원, 복지관, 사립학교 등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정해 민법이나 세법상 혜택을 주어 육성하고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을 통해 이에 따르는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종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련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 종교계는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헌법 조문과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종추련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11조 1항)’,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11조 2항)’,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고 명시한 헌법 조문을 언급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종교계를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 종교법인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수만 재단법인 2백68개, 사단법인 2백61개 등 총 5백59개에 달한다. 이들 비영리 종교법인은 재산 압류금지, 법인세 감면, 종합토지세 비과세 등 총 19가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다시말해 종교단체들은 재산 소유자가 유고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되면 재산의 소유권이 법인 소유가 되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교법인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종추련은 “전 세계 1백 27개국에서 대부분의 종교단체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르는 권리와 함께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종교법이나 종교법인법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인구 가운데 74.7%가 기독교인인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조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가 종교를 후원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1993년에는 ‘종교의 자유회복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가 종교적 수행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수행은 정부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 이는 그토록 중시하는 종교의 자유도 국익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종교단체의 공공화를 추구하는 독일은 종교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종교단체의 공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조정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각 종교의 연합체와의 협약을 통해 종교세의 징수, 종교교육실시, 문화재 보호, 장례와 묘지 관리 등 공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1951년 종교법인법을 통해 종교법인에게 종교재산과 관련된 구비서류와 장부 비치를 의무화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서류 및 장부를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추련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세 차례의 세미나와 두 차례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선 분위기가 고조될 연말에는 주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종추련은 또 내년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 ‘종교법인법’을 입법 청원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들은 ‘종교탄압’ 이라고 규정한 뒤 강력반발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아직 총무원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향후 종무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그릇 비면 세상도 깨끗 불교환경연대와 조계사가 4월 25일 공동으로 실시한 ‘제1기 불교환경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서 50여 참가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빈그릇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TIP 종교법인법이란?

종교법인의 설립등기,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대장경의 가르침 배우세요”

해인사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시작…본지 중계

팔만대장경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안목과 생활불교적인 이해로 해설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28일부터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를 시작한다.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는 총 1514종의 방대한 경전으로 이뤄져 있는 팔만대장경을 총 36회의 강의로써 팔만대장경의 대표적 경전 36권을 해설하는 것.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숫타니파타(5월 26일)’ ‘백유경(6월 23일)’ ‘아함경(7월 28일)’ 등 경전을 선정해 매월 1회의 강의로써 그 경전의 기본 사상을 설법한다.

강의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리며, 3년간 36회 진행된다. 매회마다 본지가 강연내용을 요약 중계한다. **남동우 기자**

개성 영통사서 의천 스님 다례 ‘합의’

올해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906주기 다례재가 11월 14일 개성 영통사에서 열릴 전망이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4월 22~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유영선) 정서정 서기장 등을 만나 이같이 잠정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님은 이어 “행사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개성에서 만나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봉축행사를 개성 영통사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I Love Buddha /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기

용정운(www.zentoon.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영진 스님
‘참된 불법은 깨달음에 있다’
5월 9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세상鏡

김규진씨, 서글픈 ‘가정의 달’

봄바람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김규진(48)씨의 방. 만삭의 산모처럼 복수가 차 오른 배를 가누기 힘들어하며 거의 방에서만 생활하는 그가 봄 같은 선물을 받았다. 부선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이 명상음악 CD를 가지고 온 것이다. 좋은 음악들을 골라서 스님이 직접 만든 CD를 받은 김규진씨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겠네요”란 짧은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규진씨는 독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유학을 했다. 힘든 유학생활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밝았는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병마를 만났다. 종합병원에서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도 받았다. 그 순간 그에게는 오기 같은 것이 생겼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퇴원을 했다. 그리고 절과 산을 다니며 기도하고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철저하게 바꿨다.

병원에서 선고 받은 ‘길어야 6개월’이 네 번 지나갔다. 그의 투병생활은 불교와 자연에 ‘귀의’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귀의하되 철저히 귀의하는 것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올 봄은 힘에 부친다. 복수가 차오르고 고통이 심해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연식과 요양치료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만만치 않다. 유일한 생계였던 과외지도를 그만 두고, 그간 빚도 적지 않을 텐데 밝은 얼굴 잃지 않으려 애쓰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힘겹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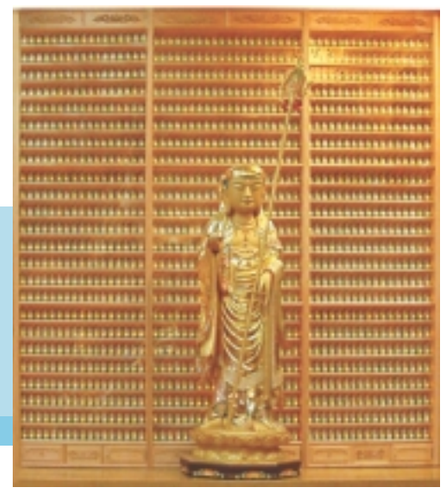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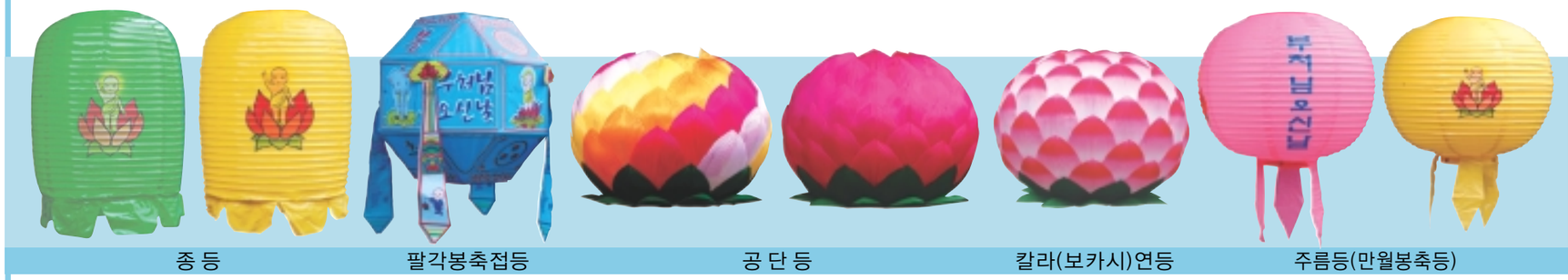
가정의 달, 병마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이 없기를 기원하는 것도 불자의 몫이 아닐까? (김규진 010-8953-1479)

임연태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어린이 교육센터 세우자”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서 이수경 교수 제안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어린이 불자상 정립과 그 포교 방향성’을 주제로 제24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수경 교수(동국대 불교아동학과)는 ‘어린이 발달 특징과 교육의 일반적 이해, 불교적 접근’ 주제 발제에서 ‘불교 어린이 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불교에서 아동은 자신이 가진 의지 및 지혜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으로,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수행 정진을 통해 결국 깨달음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 봤다.

지도자 양성 · 인재 확보 시급
성인 · 어린이법회 연계 필요
대효 스님 ‘대학교육기관’ 제시

이러한 불교 아동관을 바탕으로 △불교경전 속에서의 아동교육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논문 및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이나 사찰 어린이법회 등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부모로서 가져야 할 태도, 지식,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및 사이버 장학지도를 통한 원장 및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불교 어린이 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효 스님(제주 원명선원 원명유치원 원장)은 ‘어린이상과 그 포교 방향성 모색’ 발제에서 어린이포교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학교육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스님은 “지금 종단 상황을 보면 어린이포교는 물론이고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 · 청장년의 후속 단계도 짙은 안개 속에 드리워져 있다”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지도자 양성 등 인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안으로 ‘대학교육기관의 설립과 그에 따른 연구기관 운영’을 들었으며 ‘종립대학 사범대학에 선수행 교육학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린이 지도자 양성 △인성프로그램 개발 △풍부한 자연경관 및 전통사찰을 활용한 전인프로그램 개발 △책이나 영상물 제작 △성인법회와 어린이법회 연계 등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숙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어린이 지도자 양성을 위해 △5 · 60대 퇴직불자교원을 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과 △전국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놀토를 활용한 내실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과 △교사불자연합회, 교육경영직불자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한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시스템 운영 강화를 제안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도문 · 원명 스님 등 원로위원 10명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 광우 · 명성 스님 등에 ‘명사법계’ 품수키로

조계종 원로의원에 도문(대각회 이사장), 원명(통도사 방장), 밀운(봉선사 회주), 명선(흥국사 주지), 월서(봉국사 주지), 혜승(고운사 회주), 정무(석남사 주지), 현해(월정사 회주), 고우(전국선원수좌회 선림지도위원), 법흥(전 송광사 주지) 스님이 선출됐다.

또 혜운(前 운문사 주지), 정화(前 견성암선원 선원장), 광우(前 전국비구니회 회장), 정훈(영화사 회주), 묘엄(봉녕사 주지), 지원(금련사 주지), 명성(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에게 명사 법계가 품수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원로의원을 선출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원로의원 중 이두, 도천 스님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은 총 25명이 됐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해 7명의 원로비구니 스님들에게 명사 법계를 품수키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지종가 위상 높이는데 노력”

영축총림방장 원명 스님 추대법회 봉행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가운데)이 통도사 사부대중의 박수를 받으며 방장실로 향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3대 방장 원명지종 스님 추대법회가 4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에 앞서 원명 스님은 21일 방장실인 정변전에 입실했다. 이 자리에서 원명 스님은 “화합을 제일 중심으로 하겠다. 자장 스님의 창건이념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 前 방장 월하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지종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짧게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추대법회에서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산옹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 사부대중은 방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화합하고, 전법도생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그 동안 통도사 방장 문제에 우려와 걱정으로 지켜보아 왔다”며 “방장스님 추대를 통해 영남불교의 중추적인 양대 본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원명 스님은 “간절히 바라노니 부디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삼라만상 그대로가 마음의 광명이로다. 오늘 이 산승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오로지 설달 부채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니 사부대중들은 산승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릴 지어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추대법회에는 원로의원 지혜, 원명, 혜정, 초우,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김양수 · 주호영 국회의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통도사=남동우 기자

유치원 2년 근무 ‘3급 승가고시’ 가능

조계종 교육원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 “포교에 도움”

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유치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군승이나 교법사로 2년 이상 복무해도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27일 회의를 열고 ‘승가고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원은 회의에서 ‘선원에서 4안거’를 이수한 뒤 △전문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 졸업 △전문선원에서 4안거 이상 성만 △구족계 수지 후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교육원장이 위탁한 특수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 이수 △교육원에서 인정한 교육 교역자로 종단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복무 △구족계 수지 후 군승, 교법사 등으로 2년 이상 복무 △종무기관에서 임명한 상임포교사, 종무(과장)소임으로 2년 이상 복무 △종단, 본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 2년 이상 △말사 종무직, 유치원, 상근 포교직으로 한 장소에서 2년 이상 복무 △교육원장이 인증한 일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면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종립 승가대학원을 졸업한 자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식기관이나 기능보유자에게 연구나 기능연마를 3년 이상 계속한 자 △율원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종단에서 인증하는 전문 습의사직에 복무한 자 △구족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 입학해 4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등에게도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제주 관음사 왜 시끄러운가?

‘주지 자격’ 놓고 의견 대립

산중총회 진명 스님 선출…총무원 ‘직대’ 임명

4월 24일 오전 11시.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에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스님이 내정됐고, 오후 1시 임명장 전달식이 있다는 소식이 총무원 기획실을 통해 전해왔다. 그러나 곧이어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결국 임명장 전달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오후 6시 시몽 스님에게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전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분여를 앞두고였다. 사안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정

문제의 발단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관음사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 개최 시 2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며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산중총회를 강행했다.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2006년 10월 26일 관음사 교구 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특정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했다. 그 결과 선거는 무산됐다.

총무원은 2007년 1월 23일 진명 스님(前 포교연구실장)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임명할 때 ‘직무대행기간 동안 여법한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주지를 선출할 것’을 서약 받았다.

그러나 관음사 교구선관위는 산중총회를 공고하면서 후보자 자격을 ‘제23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관음사 교구선관위원 전원을 호법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관음사 교구 선관위는 4월 20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진명 스님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쟁점은

문제의 핵심은 주지후보자 자격 문제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열린 제175차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는 종무원이기 때문에 종무원법 제6조 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입후보할 수 있다”며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관음사 교구 선관위원 전원 호법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은 24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승가는 고유의 전통이 있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지후보자는 관음사 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중앙선관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음사 교구 스님들은 16일 발표한 촉구서에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수렴청정하며 모든 권리행사를 하려는 중원 스님의 독선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들에 따르면 “관음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배경에는 종헌종법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관음사 규칙과 회주중심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망은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받은 시몽 스님과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 10여명은 25일 주지직인수인계를 위해 관음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주차장 입구부터 막아선 관음사 신도들의 저지로 인수인계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니 절대 충돌을 피해라”고 당부했다. 시몽 스님도 24일 “중원 스님도 옛날과 달라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강경하지만 누그러지실 것”이라고 말해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진명 스님은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관음사 주지 ‘직무집행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제주 관음사 교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5월 3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직지사 천일기도 법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고웅좌 숨결 이루고 전법 도생의 원력으로 억조창세에 천년의 세월 한결같이 고려 초 경잠선사께서 황악산자락 직지사 대가람에 천불 부처님을 조성해 모신지 역사적 시공을 넘어 오늘에 빛이 되어 수행과 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천일기도 법회에는 천불전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기도법회에 많이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의 큰 복 지으시기 바랍니다.

천불전 삼존불 점안법회
제46회 회향 및 제49회 입재 천일기도 법회

◆일시 : 불기 2551(2007)년 5월 6일 (음력 3월 20일)
▶천불전 삼존불 점안법회 오전 9시
▶천일기도법회 오전 10시
◆문의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우740-812)
◆종무소 : ☎ 054)436-6013, 6174 / Fax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 합장



조선시대 最古 선묘불화 공개

정우택 교수 '가정 11년명…'

제작연대가 밝혀진 조선 선묘불화(線描佛畵) 중 가장 앞선 시기의 불화가 공개됐다.

정우택 교수(동국대박물관장)는 4월 21일 열린 동악미술사학회 제39회 월례발표회에서 '가정(嘉靖) 11년명 금선묘(金線描)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를 공개했다(사진).

정 교수가 최근 일본의 한 사찰에서 발견한 이 불화는 아래쪽에 기록된 화기(畵記)에 제작연대가 '가정 11년' 즉 1532년이라고 밝혀져 있다. 여수령 기자

편안한 법당은 또 하나의 치료공간

고려대 구로병원 개원…각종 강좌 계획



4월 24일 개원한 고대 구로병원 법당에서 지도법사 지현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우주 고대의료원 불자회장(맨 오른쪽),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알찬 법당 운영을 다짐했다.

4월 24일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병실마다 한 송이 연꽃이 전해졌다. 구로병원 법당 개원을 축하하는 의미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종이를 말아 만든 연꽃이다.

종이 연꽃을 손에 쥔 환자와 어린이, 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구로병원 법당 개원법회가 시작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월호 스님(쌍계사),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 고려대학교의료원불자회 김우주(감염내과의) 회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변관수 부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법당 개원을 축하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에 법당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원한 안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 안암병원 법당도 오는 6월 경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법당 개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현 스님은 고대의료원에서 12년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법당 개원을 추진해 왔다. '환자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주자'는 일념으로 시작한 불사다.

법당으로 사용할 공간을 내 주지 않는 병원측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한편으론 불자직원을 수소문해 불자회 창립을 도왔다. 이후 불자회 회원들과 함께 의료봉사도 하고 경전공부도 진행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병원으로부터 법당 개원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인연 닿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후원금을 받았고, 병원법당의 필요성을 알리려 동분서주했다.

지현 스님은 "지난해 연말 현대불교신문에 기사가 난 이후 구로병원 법당 개원에 필요한 불상을 모실 수 있게 돼 걱정을 덜었다"며 "더욱 정진해 안암병원의 법당도 여법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만나보면 명상이나 참선 등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수행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참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병원법당을 개원하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종단에서 병원법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법당이니만큼, 향후 운영 계획도 알차다. 매주 환자를 위한 정기법회를 여는 것은 물론, 경전과 참선강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불자회의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김우주 회장은 "비록 법당은 넓지 않지만, 고대의료원 불자회 봉사활동의 폭과 깊이는 그 어느 단체에 못지않다"며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더 많이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고대의료원 법당 개원이 촉매제가 돼 더 많은 병원에 부처님이 모셔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지현 스님은 쉴 틈도 없이 안암병원 개원 준비를 시작했다. 고대의료원 법당 개원은 스님이 서원한 불사(佛事)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여수령 기자



올해도 동자승 오셨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4월 23일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식을 가졌다. 하동훈(금강유치원)군 등 8명의 어린이들은 삭발을 하고 5계를 수지했다. 동자승들은 봉축기간 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봉축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권력과 돈으로 위태로운 질주"

수경 스님, '불교평론' 봄호서 '공개된 비밀' 언급

수경 스님(서울 화계사 주지 ·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조계종의 '공개된 비밀'을 끄집어냈다. 스님은 〈불교평론〉 봄호에 '조계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지금 조계종단은 '권력'과 '돈'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타고 위태로운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부대중 참여한 '자정기구' 세워야

종단이 잘못 굴러가도, 승풍이 무너져도, 이를 경책하는 종단 어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산중총회나 대중공사, 임회(林會)와 같은 전통이 상당수 단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경 스님은 "원로스님과 재가불자를 포함한, 그야말로 사부대중이 참여한 자정기구를 세워서 사찰 재정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립 율원' 세워 승풍 바로잡아야

스님은 또 "'종립 율원'을 세워 승풍을 바로잡자"고 요구한다.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수행자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 집단 윤리 의식의 구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계체(戒體)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또 계율을 독려하는 기능도 있다.

△'종립 염불원' 설립을 제안한다

간화선 과잉 분위기는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라는 '막연한 오만'과 깨닫지 못하는 한 누구나 중생이라는 '오만한 평등주의'를 낳았다. 대부분 불자들의 신앙 행위가 간화선 위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배려는 없다.

수경 스님은 '종립 염불원' 설립을 제안한다. 염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선 이외의 많은 수행 방편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무원 집행부, 세상과 소통해야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는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꽉 닫고 있는 것 같다. 총무원은 최우선 과제로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자리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부터 해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보장할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남동우 기자

보덕암 · 묘길상 참배길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내금강 성지순례 6월초부터 시행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올 6월초부터 내금강 성지순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금강산 성지순례 운영을 맡고 있는 현대아산이 북측과 내금강 관광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치고 올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금강산 불교성지순례 상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사업단도 6월부터 본격적인 내금강 성지순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내금강 성지순례는 2박 3일 일정으로 150명씩 출발해 1일차 신계사 참배, 2일차 내금강 성지순례, 3일차 구룡연과 만물상 중 1개 코스를 선택하는 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월 · 수 · 금요일 출발하는 현대아산의 사업과는 달리 화 · 목 · 일요일에 출발하는 별도의 일정으로 불자들만 참가한다.

특히 내금강 성지순례는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인 표훈사와 장안사터, 구리기둥 하나에 모든 것을 의지한 보덕암, 금강산 최대 석불인 묘길상, 김동 거사와 나옹 화상의 전설이 깃든 삼불암, 금강산 최대의 절경을 자랑하는 정양사, 불교계 수많은 선지식들이 수행했던 마하연사터, 스님들의 부도와 비석이 남아있는 백화암터 등 많은 불교성지와 계곡미로 유명한 만폭 8담 등이 포함돼 불교문화유적과 내금강의 절경을 동시에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게 구성됐다.

문화사업단은 우선 사찰 단위를 성지순례단만을 모집할 계획이다. 성지순례 신청 접수(02)2011-1859~60. 남동우 기자

사찰 이중규제 풀릴까?…조계종 · 정각회 6월 11일 공청회

사찰 불사 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대규모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국회 정각회가 공동주최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24일 가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공청회 추진을 위해 향적 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장적 스님(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청회는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짱' 들 다 모여라!

파라미타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5월 20일 열리는 제7회 파라미타 음악놀이 페스티벌 행사에서 끼를 마음껏 발산할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연등축제 기간 중 서울의 중심가인 종각역 우정국로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청소년을 위한 무대에는 중 · 고등학교 개인 및 그룹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02)723-6165 김원우 기자

전등사 외국인근로자잔치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찰이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인다.

강화 전등사(주지 장윤)는 5월 6일 제2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잔치를 연다.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태국, 몽골 등지에서 온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삼랑성 일대 관람과 인경체험, 단주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풍물 락밴드 공연 등을 관람하게 된다.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팀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연등축제의 노래2' CD 나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현문 · 조계종 총무부장)가 '연등축제의 노래 2'를 CD로 제작해 보급한다.

이번 CD에는 대표곡이었던 '오늘은 좋은날' '길 떠나자' 등 17곡의 노래가 수록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창작곡 '잔치 열었네' '좋아 오늘이야' 등이 포함돼 있다. 남동우 기자

연출_안병길 / 기획_송묵 / 감독_가산

"선인들의 뜻을 기려 내고장 맑고, 향기롭게"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초 대 합 니 다

30여년 전부터 찬불가를 통해 불음홍포를 해오던 경기북부지역의 불교연합합창단들이 2005년 제1회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2006년 2회는 '고양어울림극장'에서 '경기북부불교음악제'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007년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를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남양주 · 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의 주관과 경기문화재단과 남양주시 등의 후원으로 경기북부 모든 불자와 도민이 동참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합니다.

본 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지역의 8개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불교전통문화와 현대음악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번 음악예술제에 초대하오니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5월 11일

제3회 경기북부사암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 철 안 / 집행위원장 금 담 합장

일시 _ 불기2551(2007)년 5월11일(금)
봉축법요식 pm6:00
음악예술제 pm7:30

장소 _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최 _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_ 남양주 · 구리시불교사암연합회

제1부 봉축법요식 pm 6:00 ~ 7:0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제2부 음악예술제 pm 7:30 ~ 9:30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제3부 행운권추첨 · 뒷풀이 pm 9:30 ~ 10:00

문 의 031-558-0108



남양주 백봉산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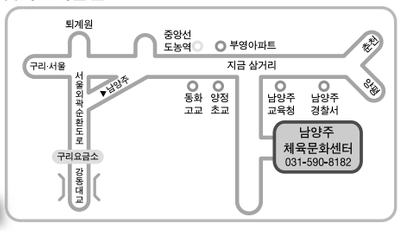
동참하시는 분들께 푸짐한 행운도 함께 나눠드립니다.

지펠 냉장고 홈바형684l / 고급형 1대
김치냉장고 206l 고급형 1대 · 29인치 평면TV 1대
드럼세탁기10kg 1대 · 그릴 가스레인지 5대
한경희 스팀청소기 10대 · 전자레인지 5대
농협상품권 십만원권 6명 · 오만원권 10명
파티쿠커 30대



상기 경품 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_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로 나와 건너편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를 이용.
버 스 _ 7호선 상봉역 2번 출구로 나와 버스 30, 165, 166, 1330, 3330 등을 타고 남양주경찰서에서 하차하신후 바로 아래에 있는 농협앞에서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가 매시간마다 25분, 45분 2회 출발.

· 40명이상 참석하고자 하시는 단체는 미리 연락 주시면 차량지원을 해드립니다.

협 찬 _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 동두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양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 /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 / 포천시 불교사암연합회 /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 양평군 불교사암연합회

후 원 _ 경기문화재단 남양주시 (사)천수천안 자원봉사단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BBS 불교방송 佛敎新聞 (사)삼보불교음악협회 행사문의 _ 남양주 · 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 전화 031-558-0108

광고제작 ㈜뉴미디어연구소 T.02-381-9001

조계종-이탈리아 문화재 보존과학 심포지엄

"복원 앞선 예방이 전재돼야"

"문화재 보존관리는 예방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보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성보문화재 보존패트롤' 등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안병찬 교수)

"문화재 보존과 복원은 '예방적 차원의 방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방 보존 활동이 작품의 피해를 줄이고 수리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파트리치아 미라콜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주최한 '문화재 보존과학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심포지엄은 4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과 막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탈리아 국립중앙복원학교 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재 보존현황과 연구방법'이란 주제로 열린 1부 발표에서 안병찬 교수(경주대 문화재보존학과)는 '사찰문화재의 보존현황과 미래'란 주제발제를 통해 △성보문화재보존패트롤 운영 △성보문화제 복제프로젝트 △불교중앙박물관과 문화재 보존과학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성보문화재는 제작 당시의 사회 · 문화와 전통 과학기술, 정보가 축적된 산물"이라고 정의한 후 "성보문화재의 수리 · 복원과 관련한 보존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조건축물이나 석조물의 손상된 원 부재를 새 부재로 교체하며 원 부내를 폐기처분하거나 복원된 부분이 구별되지 않게 복원하는 것 등은 보존지침의 부재(不在)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원 작업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앞서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기록 · 관리하고, 문화재 보존 환경관리 · 유물 취급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보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재 보존과학 공동심포지엄'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복원작업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현 상태 기록 등 '보존관리지침' 시급
사찰·대학 중심의 '보존 패트롤'도 필요

이와 더불어 야외에 위치한 성보문화재를 순찰, 관리하는 '성보문화재 보존패트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트리치아 미라콜라 박사 역시 "적절한 시기에 예방과 보존을 통해 문화재의 수명을 관리하는 것이 복원 활동의 기본 원칙"이라며 "복원 작업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작품에 개입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부 '목조문화재의 보존과학'과 3부 '전적류 및 견직물의 보존과학' 발표에서는 분야별 복원 사례와 복원기술의 교류가 이뤄졌다. 김익주 연구원(경담문화재 보존연구소)이 '불교 목조 문화재 보존처리'를 주제로 전북 김제 흥복사 대웅전 삼존불의 복원과정을 공개했고, 코스탄자 론고 연구원은 '다채로운 목공예품의 보존'을 주제로 이탈리아의 목공예품 복원 기술을 소개했다. 보존과학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용인대)는 '한국 불화 및 전적의 보존처리'를, 마누엘라 자르바 연구원은 '이탈리아 견직물의 복원과 보존문제'를 주제로 직물과 전적류 보존과정의 구체적인 노하우를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이탈리아 연구원들은 25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통도사와 불국사 등을 방문하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성보문화재를 직접 관람했다. 여수령 기자

"습관 고치고 건강 지키고 혜택받고"

금강대 교직원 및 재학생 '빈그릇운동' 전개

220여명 동참 실천카드 받아

천태종립 논산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는 4월 18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빈그릇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심시간을 이용 '빈 그릇 운동'을 실시한다.

현재 금강대 학생과 교직원 220여명이 참가 신청한 빈그릇운동은 점심식사 시간마다 '빈 그릇 운동' 참가 학생들의 잔반 여부를 확인하고 실천카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청송(1학년)양은 "학생 개개인의 음식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어 건강에 유익해서 좋고 크게는 식량자원이 절약되어 국가경제에 일조할 수 있으며, 또 무엇보다 급식 질이 향상되어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 일석삼조잖아요"라며 이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금강대는 매월 '빈 그릇 우수 실천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할 예정이며, 가까운 노인회관 · 양로원 등에 여분 음식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깨달음의 길, 그 '과정'을 설명한다"

용두산 미타선원 간화선 수행법 특별법회 개최

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내안의 부처를 찾는 길'이란 주제로 효산 스님(효산선원장)의 간화선 수행특별법회를 개최한다.

5월 5일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란 주제로 시작하는 이번 법회는 '말의 원리'와 '몸의 세계와 원리'에 대해 12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법문한다. 이어 6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법과 찾아 쓰는 법'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과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수행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문 후에는 질의시간도 열 예정이다.

하림 스님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 법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051)253-8687 하성미 기자

범하 · 흥선 스님 문화재 위원 선정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과 흥선 스님(직지사성보박물관장)이 4월 25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의 문화재위원에 위촉됐다.

문화재청은 25일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200명을 새로 위촉했다. 범하 스님은 동산문화재분과에, 흥선 스님은 무형문화재 공예분과에 각각 임명됐다. 문화재위원장에는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분과와 예능분과로 분리, 증설하고 민속문화재분과와 문화재경관분과를 신설해 전문성을 더했다.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 창립

청주청원지역 불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청주청원 조계종주지협의회가 창립됐다.

4월 24일 청주 수도원(원장 설곡)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청주청원조계종주지협의회는 불법을 홍포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 창립한 단체. 앞으로 소외계층을 지원 지원사업과 봉사활동, 지도자 연수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설곡 스님이 회장에, 석담 스님(지장사 주지)과 묘정 스님(보문정사 주지)이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주지 진산식 및 부도탑 제막식

청주 풍주사(주지 덕일)는 5월 10일 관음전에서 덕일 스님의 제2대 주지 취임 진산식을 봉행한다. 또한 이날 범추당 정수대화상 부도탑 제막식과 유고집 출판 기념법회도 함께 열린다. 청주 풍주사는 지난해 6월 입적한 범추 스님이 1966년 건립한 사찰로, 신도 5천여 명이 찾는 청주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사찰 내 풍주선원과 고시원을 마련해 출 · 재가를 막론한 교육포교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043)256-5585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대구 화엄불교대학 세계기아 돕기 공연

대구 화엄불교대학(학장 진귀)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 행사를 연다.

화엄불교대학은 5월 5일 네팔국립무용단을 초청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 어린이날 특별공연'을 펼친다. 또 합창단 공연과 마술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날 공연 수익금은 네팔정부와 유니세프로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구원과 해탈 지향점 같다"

교불련-기독자교수협 제2회 공동학술세미나

"생태적 삶 실천 공통점"

불교와 기독교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해탈'과 '구원'의 참뜻과 우리네 삶 속에서 이 지향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오)는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구원과 해탈'을 주제로 제2회 '기독교-불교 교수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구원'과 '해탈'의 정의를 내려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은 '구원, 오늘 우리의'라는 발표에서 "구원은 나라는 존재가 이미 '너'와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하느님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구원은 자력적이라기 보다 근원적으로 타력적이지만, 자력이라는 것 역시 '타(他)'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원장은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근원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열반'의 의미는 이민용 참여불교연대 공동대표가 짚어봤다. 이 대표는 "열반이 종교적 오메가로 부각된 것은 서구 기독교적 발상"이라며 "열반은 현실의 고통, 인간적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이원론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반의 한계가 윤회이고 윤회의 한계가 열반이며 이 두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 용수의 이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구원과 해탈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일까?

이명권 코리아아쉬람 대표는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해탈의 결과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 곧 보시(布施)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최종석 교수는 "구원과 해탈은 곧 의인(義人)과 보살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법용 스님, 포교당 달마원 개원



'무보시 달마도 그리기'의 주인공 법용 스님은 5월 7일 부산 초량동에 해인사 고불암 포교원을 개원한다.

법용 스님은 "달마도는 기복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달마대사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다"며 "달마도를 그리면서 2년 동안 포교원 불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정기법회를 열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달마도 10만점을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51)441-0981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제23교구산중총회 입장표명

1. 근간에 제23교구본사주지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본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상광고, 성명서, 인터넷을 통한 잡음조성과 유포 등은 본교구와 관계없는 외부인사들이 불순한 의도와 목적(제23교구를 빼앗으려는)으로 생산하고, 조작하고, 퍼뜨리는 악의적 소행임을 밝힌다.

2. 이렇게 불순한 움직임에 동원된 제23교구 관련자 몇 분은 사설사암 관계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제주불교 근본도량 건설을 위한 관음사 성역화 불사에 10원 한 장 보탠바가 없고 교구본사 주도의 지역사회 불교행사와 불사에 일체 협조가 없었던 분들로서 염치와 상식이 있다면 본사주지문제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처지의 분들이다.

3. 종단 각기관의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제방의 대중스님들께서는 이들의 악의적 잡음조성과 유포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제23교구를 지키는 승가의 본분으로 제주불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23교구를 빼앗으려는 그 어떠한 음모와 책동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교구자치권을 엄정하게 지킬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2551(2007)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제23교구 산중총회대중일동

종헌종법과 교구자치권 수호결의

작금 본교구승가 자치와 교구자치권 침해 음모와 책동에 대한 대처 결의

1. 우리는 제23교구본사주지선출과 종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본교구의 승가자치와 교구자치권을 침해하고 훼멸하려는 비승가적인 외부의 책동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2. 우리는 한국불교의 승가전통규범을 파괴하려는 반승가적인 음모와 책동으로부터 청정승가를 유지 보존하고 교구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종헌종법과 교구자치권수호제23교구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3. 종헌종법과 교구자치권수호제23교구대책위원회에 산중총회의 전권을 위임한다.
4. 대책위원회에는 종단상황과 필요에 따라 재가불자와 연대하거나 재가불자와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확장할 수도 있다.
5. 대책위원회는 제23교구자치권을 침해 훼멸하려는 책동의 근원이 되는 종단의 각종 선거관계 폐단시정책을 전종도와 더불어 강구하여 청정승가를 회복한다.
6. 교구자치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본교구에서는 서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비밀투표를 일체 보류하고 승가의 민주적 전통규범인 대중공사에 의하여 산중의 공론을 결정한다.

불기2551(2007)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제23교구 산중총회


용주사 진입로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⑪ 화산 용주사


부모은중탑

문화 갈등엔 '상생의 조화' 필요

현대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곱게 나이 먹도록 놔두어야 할 곳이 절집이다. 문명의 헛바람을 따돌리고 자연 미학을 간직한 채 늙어가는 절집은 피붙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화려하게 분장을 한 가람들을 볼 수가 있다. 세월을 거스르려는 욕심을 덧바르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다.

사람들은 삶이 복잡해질수록 자연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절집에서, 묵은 근심을 풀어버리고자 한다. 도심에서 가까운 용주사를 찾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택지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라 잘 못 길을 들어서 헤매느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싶었다. 수원 팔달문 앞에서 용주사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고 한 시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정수리로 내리 꽂히는 햇살에, 나른한 몸을 이정표 안내판 아래에 내려놓고, 초고속 인터넷에 익숙한 시간을 느림의 미학 읽기로 바꿔본다.

융건릉을 지나 용주사 입구로 들어서자 절집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오순도순 모여 살던 마을이 사라지고 불도저의 숨가쁜 엔진소리만 가득하다. 쭈그리고 앉아 있는 소파와 세간들이 파란 하늘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다. 절집과 함께 살던 사하촌 사람들의 흔적은 지워진지 오래고, 풍경소리로 귀를 적시는 절집의 고요함마저 누군가 빼앗아가는 느낌이다. 사천왕문 앞에서 막 깨어난 나무들의 파란 웃음을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산문으로 들어서는 마음이 가벼웠다.

용주사는 조계종 2교구 본사로 당파싸움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정조대왕이 능사로 창건했다. 불교가 탄압받을 시기에 140여 채나 되는 사찰규모로 볼 때 용주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엿볼 수 있다. 정조의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효심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세기를 뛰어 넘어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 정조가 현륭원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고 보경스님을 도총섭으로 하여 사찰을 중수한 후 낙성식을 하게 되었다. 그 날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어 용주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대웅전 앞에 정조가 심었다는 회양목은 오랜 세월 사철 푸른 잎을 피워 올리느라 몸이 쇠약해졌나보다. 정조의 효심으로 지금까지 용주사 뜰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용주사는 지금 까치고개와 송산리 · 안녕리 마을 주민들과 개발로 인한 갈등에 휩싸여 서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

사하촌이 태안3지구 택지지구로 선정되어 보상에 들어간 2004년, 용주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야기가 발발했다. 만년제라는 도 문화재가 있는데, 정조시대의 저수지이다. 문화재 300m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데 주택개발공사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을 올렸고 경기도가 2003년 승인을 해줬다. 용주사가 그 사실을 알고 주택공사에 개발 이의를 제기하자 주택공사는 용주사 옆 2만4000평을 공원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용주사는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 36만 평을 전부 '효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을 들여 만들어 놓으면 자손들에게 좋은 문화유산을 물려 줄 수 있겠지만, 기하학적인 세원으로 공원을 만들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에 의해 마을 형성
최근 택지개발로 절 · 주민 갈등
문화재 보호지구 지정 '孝 공원화'에
"보호정책에 일방적 희생 강요" 반박

주장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만년제는 인공적으로 파놓은 호수이고 그 옆에 인공섬이 하나 있었다. 융건릉은 대한민국의 명당자리로 소문난 곳이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국이라는 뜻을 지닌 땅인데, 만년제가 여의주라고 사찰에서는 주장하고, 주민대표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능 옆 야트막한 까치 동산을 풍수지리학적으로 안산이라 하여 여의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 지정된 문화재 앞에서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 자료가 갈등의 고리를 풀어줄 것인지 의문이다 .

안녕리 · 송산리 마을은 일찍부터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곳인데다, 국도 1번이 병점에서 들어와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한다. 차범근씨의 고향이기도 한 사하촌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동수원보다 큰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 1963년에 약 30만 평 조선 왕조 땅이 보훈처로 넘겨져 한국전쟁 참전 제대군인들에게 불하를 해주었단다. 20여 가구가 들어와 현대식 농장을 조성해 70년 최초로 낙농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마을이라 그랬는지 용주사와 사하촌은 서로 도우며 살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정호 스님이 제안하는 '효 공원'을 만들자는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역사학자 토인비도 한국의 '효' 사상을 미래의 문화혁명을 일으킬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역주민과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데는 지나친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하다. 주변 아파트 사람들은 태안3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효 공원'만 들어온다면 개발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묶인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병원이나, 학교 등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아파트만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용하고 더 세밀한 대안을 내어 놓았다면 큰 역사를 이룰 뻔 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택지 헐값 보상을 받은 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의 근원이 되었다. 경기도의 10군데 보상을 받은 택지지구 중 태안3지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받았단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8 · 3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투기지역 실거래가격 양도소득세 징수 발효시기와 맞물려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타협해 볼 생각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땅을 팔아버린 것에 아쉬움이 있는 듯했다. 주찬범씨는 직업군인인 아버지가 젊음을 바쳐 정부의 개간촉진법 시범단지로 만들었던 땅이라며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아보더니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틀림없이 문화재는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보호되어야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집과 사하촌의 문화 갈등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용주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태안3지구 택지지구

부모은중경

억불정책 폈던 정조 '부모은중경'에 감동 용주사 불사 원 세워

정조대왕도 역대왕들과 마찬가지로 억불정책을 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부터 궁실에서 빈번하게 지어왔던 원당사찰 건립을 중지시켰던 정조가 어떻게 전 국민이 동참하는 불사에 용주사 건립 뜻을 세웠을까. 다름 아닌 보경 스님께 들은 불경 <부모은중경>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은중경>은 크고 깊은 부모의 10가지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르치는 경전이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컸던 정조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것 같다. 첫째 아기를 배어서 수호해 주신 은혜, 둘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셋째는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시는 은혜, 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일곱째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여덟째는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째는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감히 짓는 은혜, 열째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정조가 <부모은중경>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용주사의 유물에서 쉽게 읽을 수가 있다. 용주사 건물들에 걸린 많은 주련들은 정조가 당대의 명 문장가인 이덕무에게 쓰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 자랑거리인 효사상과 경로사상이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무원에 공개요구한다

- 4·8봉축행사를 앞두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봉축위원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는 진명스님을 거부하고 총무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지직무대리를 임명하는 처사는 도저히 우리들 신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원 스님들에 대한 경칭을 생략하겠다.
- 지난 4월 20일 제주불교신도대표 10명이 총무원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신도들의 탄원은 일체묵살하고 총무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임명한 주지직무대리를 즉각 철회하라.
- 총무원 방문시 스님들이 종헌종법대로 한다고 하기에 우리는 관련종헌종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위반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원회와 총무원이었다.
- 총무원은 제23교구 산중총회의 진명스님 주지선출을 인정하고 관음사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의 관음사 혼란과 비정상화사태는 총무원 당국이 자초한 것이다.
- 만약 끝내 우리의 요구를 무시외면하고 관음사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면 우리는 제주불교의 본산이요, 제주전통문화의 중심인 관음사를 제주도민과 더불어 자주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

공동위원장 김신형(관음사 신도회 회장)
문인종(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 회장)
강원희(관음사거사림 회장)
오응천(제주불교문화대학 초대회장)
하맹사(제주불교신도회 대표)

일주문



관오사 가족법회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은 5월 6일 오전 10시 대구 관오사 일요가족법회에서 '주인 된 삶을 살자'는 주제로 법문한다.



은탑산업훈장 수훈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4월 30일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파라미타 기금마련 서각전시회

김천 은곡사 주지 상묵 스님은 대구 파라미타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서각 전시회를 4월 21~29일 대구불교회관 1층 목연갤러리에서 개최했다.



개금불사 회향 및 점안법회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5월 6일 혜인 스님(제주 약천사 회주)을 증명법사로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43)256-6254



연근 캐기 체험행사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5월 5~6일 선원사 연지(蓮池)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연근캐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32)933-8234



금속공예 전시회 개최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4월 28~3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금속공예 전시회 '구슬정원 Ⅱ'를 개최했다.

5월의 환우에 자비의 손길을…

생명나눔실천본부, 김금희양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금희양(15 · 사진)을 5월의 환우로 선정,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

김금희양은 올해 초 감기로 입원했다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현재 병원에서 연결해준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김양은 다행히도 언니와 조혈모세포(골수) 조직형이 일치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월세 25만원과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해 가족들은 치료비를 마련할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도움을 줄 불자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후원계좌(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로 입금하면 된다.(02)734-8050 **여수령 기자**

"불교와 복지는 같은 말"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취임 일문 스님



"1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매일 4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노인프라자' 같은 복합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려 나가겠습니다."

4월 2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원장에 취임한 일문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 · 사진)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불교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왔지만, 막상 현장에서 부딪쳐보니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만큼 불교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노인복지의 흐름을 선도하고 더불어 포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생활 · 문화 · 건강 복지사업은 물론, 인력개발과 정보지원 · 기획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설문조사 활동 사업인 '탑리서치', 초등학교 예절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직원 교육으로 불교사회복지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난 3월 개원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연대를 통해 사업 교류와 지원도 모색한다.

"불교와 복지는 결국 같은 말"이라는 일문 스님은 "불자들과 종단에서 불교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문 스님은 조계종 13대 중앙종의회의원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中 고급평차사·보이차 명인 선정

한서대 정인오 교수…한국인 최초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전공 · 사진)는 차(茶)계에서 '소임'이 많기로 유명하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자 국내 최초의 차엽(茶葉) 전문연구소인 한국국제차엽연구소장 그리고 국내에 한 명뿐인 국제명차품평위원도 맡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직책이 이번에 더해졌다. 바로 중국 최초로 실시된 1급 직업 자격인 고급평차사 자격증 취득과 중국 운남성이 선정한 '보이차 10대 인물'에 선정된 것이다. 두 분야 모두 한국인으로는 최초다.

정 교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품평과 제다 등 차 문화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차 품평시험은 초 · 중 · 고급 평차원과 2급 · 1급 평차사의 5단계로 구분된다. 정 교수가 이번에 취득한 고급 평차사 자격시험은 중국 노동부와 사회보장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또한 4월 6일에는 중국 운남성이 선정한 '제2계 보이차 10대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보이차 10대 인물' 후보에 거론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 교의 선정은 '쾌거'라 할 만한 성과다.

"불과 4~5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차 품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종 품평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 문화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차의 객관적인 품질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차 품평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되길 바랍니다."

오는 11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2007 세계녹차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추대된 정 교수는 현재 한서대와 성균관대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신행과 연구 겸행에 최선" … 부산 교수불자회장 하만경 교수



"부산교수불자회 회원들이 신행과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세미나를 통한 불교연구에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4월 25일 부산시교수불자연합회 6대 회장에 취임한 하만경 교수(부경대 기계공학과, 법명 운곡 · 사진)는 회원들을 위한 신행 ·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회와 사찰순례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 교수는 "학문연구에 여념이 없는 교수라는 직업상 신행 · 수행 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들이 불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름 · 겨울방학을 이용해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 대학별로 스님을 초청해 경전강의를 개최하는 등 신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봄 · 가을에는 세미나 겸 토론회를 개최해 자신의 연구 분야와 불교와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새터민 1만명시대…' 영통포럼 국민토론회 개최



천태종 영통포럼(회장 무원)은 4월 19일 청주 명암타워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새터민 1만명 시대, 한국 사회의 과제와 합의 모색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거센 자본주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인 새터민을 먼저 살고 있는 남쪽 국민들이 잡아주고 북돋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을출 교수(경남대)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자립자활에 실패하면 안된다"며 "새터민의 한국사회 정착모델로 전원형 자급자족 정착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정우택(충북도지사), 김영희 충북지회장(대한적십자사), 명장사 주지 화산 스님, 신영진(충북새터민공동체 회장), 이충원 원장(하나원), 이강락 사무총장(북한이탈주민후원회), 조영균 단장(새터민정착지원사업단), 안성호 교수(충북대),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용환 연구위원(충북개발연구원)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안면암 장학금 전달식



태안 낙도 포교원 안면암(암주 설암)은 4월 23일 안면암 큰법당에서 '제6회 안면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안면암은 2002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초등학생 19명과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35명에게 560만원을 수여했다.

동대병원 · 마하재활병원 진료협약



동국대 일산병원(원장 이명묵)은 3월 19일 거제 마하병원(이사장 정련)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련 스님과 이명묵 원장, 신동훈 마하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련 스님은 협약식에서 "두 병원의 협약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법회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은 4월 23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개국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 남상우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5천여 명이 참석했다. 혜정 스님은 "10주년을 청주불교방송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법문했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학술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동산대종사 열반 42주기를 맞이하여,
동산대종사의 불교정화 내용 및 사상을 재조명한 구술 증언 자료집인 '동산대종사의 불교정화운동'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동산문도회 스님 뿐만 아니라 정화불사를 겪은 원로 중진 스님 33명의 인터뷰 작업을 한 성과물입니다. 때문에, 이 자료집은 동산대종사의 불교정화운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화운동을 재조명, 재 인식 할 수 있는 최대의 증언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산대종사 추모법요(5월 9일)를 갖기 이전에 학술세미나와 출판기념회를 갖고저 하오니 두루 참석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2007년 5월

동산문도회 일동
범어사주지 대성 합장

제1부 학술세미나

- 일 시 : 2007년 5월 8일 오후1시
- 장 소 : 범어사 설법전
- 대 주 제 :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 기조발제 : 인환스님
- 사 회 : 화랑스님(동국대 강사)
  - 발제1 - 백용성의 승단정화이념과 활동 : 마성(동국대 강사) / 토 론 : 혜원(동국대 교수)
  - 발제2 - 동산의 불교정화: 김광식(부천대 교수) / 토 론 : 법진(선리연구원장)
  - 발제3 - 성철의 불교정화: 신규탁(연세대 교수) / 토 론 : 김용환(부산대 교수)
  - 발제4 - 용성문도와 불교정화운동: 덕산(교단사연구소) / 토 론 : 강동균(동아대 교수)

제2부 출판기념회

- 일 시 : 2007년 5월 8일 오후 5시 30분
- 장 소 : 범어사 설법전

문의처 ☎ 051-508-3122(범어사), 508-3636(원주실)



김동국 해남병원장.


권세도 해남경찰서장.

땅끝마을서 부처님 삶 실천하는 두 사람

김동국 해남병원장 · **권세도** 해남경찰서장

“부처님 일로 마음 통했죠”

4월 27일 해남병원. 지역 독거노인 20여 명이 해남경찰서가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 해남병원에 도착했다. 해남 경찰서 권세도 서장을 비롯한 경찰들의 부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처럼 병원을 찾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해남병원 김동국 원장이 독거노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독거노인들은 해남병원에서 의료검진 및 진료를 받은 뒤 또 다시 경찰들의 도움으로 경찰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을 나누는 밝은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합시다.”

권세도 해남 경찰서장(50세)과 김동국 해남병원장(60세)은 지역 독거노인 의료봉사 서비스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덕담을 나눴다.

권세도 서장과 해남 토박이인 김동국 원장은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이를 떠나 뜻이 잘 맞는 도반이다. 우연한 기회에 자리에 합석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지역사회 현안으로 자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 281명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했다. 이후 권 서장과 김 원장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행방안을 짜왔다.

독거노인 의료봉사 서비스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권 서장. 권 서장은 지난해 7월 서울관악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뒤 초도 순시차 노인당에 들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독거노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 중 특히 농촌경찰의 역할을 생각해 틈새행정을 구상했다.

권 서장은 “지역사회에서 무의탁 노인 진료와 낙도지역 무료진료를 펴고 있던 해남병원 김동국 원장과 만나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별난 경찰서장이구나.”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권 서장을 보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다고 김 원장은 말한다. 김 원장은 해남군의사협회(회장 이상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해 지역 5대 종합병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5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권세도 해남경찰서장은 고교시절 여행비가 없어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그 당시 여수 흥국사를 찾았는데 사천왕이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시절에는 순천 선암사 북암 서암 절골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방학을 보냈다.

서울생활을 할 때도 마음이 답답하면 승가사와 진관사를 찾아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음을 수양했다. 요즘도 해남 대흥사에 들려 참배하고, 주지 몽산 스님과 대화를 나눈다. 또 절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 돕는 것은 물론 빠지지 않고 참가한다.

그래선지 부처님의 대기설법(사람의 수준에 따라 법문해줌)처럼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도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즉 농촌에 걸맞는 치안행정이 그것이다. 농촌경찰은 농촌의 실정에 맞는 대민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도 작은 것부터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남병원 김정국 원장은 1948년 태어나면서 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 해남 대흥사 신도인 김 원장은 젊은 시절 몇 개월 동안 절에 머물며 출가를 생각했을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 대학 재학시절 방학동안에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현재도 병원장실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선친이 20년 이상 대흥사 신도회장을 맡았던 故 김재현씨이고, 어머니 故 추순덕 보살도 여신도 회장으로 활동했었다. 차에 관심이 많았던 김재현씨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전국 처음으로 다인회를 결성하기도 했었다.

가정의 이력이 이렇다보니 현재 해남 대흥사 신도회장인 형님 김동섭 이사장(의료법인 행촌재단)을 비롯해 온 가족이 돈독한 불자이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무의탁 노인 진료와 낙도지역 무료진료 활동을 했고, 해남 대흥사에서 펼치는 사할린에 절과 병원을 짓고 동포들을 돕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할린 동포병원에 엠블런스를 한대 기증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아미타경>의 ‘지중연화 대여거륜 청색청광 황색황광 적색적광 백색백광 미묘향결(池中蓮華 大如車輪 靑色靑光 黃色黃光 赤色赤光 白色白光 微妙香潔): 보배 연못 가운데는 큰 수레 바퀴 만한 연꽃이 피었는데 푸른 빛은 푸른 광채가 나고, 붉은 빛은 붉은 광채가, 흰 빛은 흰빛 광채가 나며, 지극히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다)’ 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김 원장.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며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이 말을 가장 즐겨 암송한다”는 김 원장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만나 일을 하다보니 자꾸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회향하여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세도 서장과 김동국 원장은 “독거노인 의료서비스는 매달 정기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지역의 전체 독거노인 55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서장, 농촌 실정에 맞는 틈새행정 구상 중
김원장과 생각 공유 독거노인 의료봉사 나서
청년시절 불교와의 인연이 대민봉사에 큰 도움
“매달 정례화 예정 내년엔 5500여명으로 확대”

해남/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7> 수행자로서 사람 몸을 잃는 것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에게 물으셨다. "깊은 바다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눈먼 거북이가 있다. 눈먼 거북이는 백 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마셔야만 했다. 이 바다에는 구멍 뚫린 나무판자가 하나 떠다니는데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 머리를 내밀 때 그 나무판자 구멍 속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있겠느냐?" 이에 아난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이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바로 중생이 잠깐이나마 사람 몸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는 이야기다. 부처님 말씀에 세상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일이다. <선가귀감> 67장에서 말한다.

故 古語 亦有之曰 三途苦 未是苦 袈裟下失人身 始是苦也.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지옥 아귀 축생계에서 받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니, 수행자로서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이다"라고 하였다.

삼악도는 지옥 아귀 축생계를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나쁜 업 때문에 과보를 받기 위하여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지옥에서는 언제나 뜨거운 쇳물이 펄펄 끓고 시뻘건 숯불이 활활 타오르며 날카로운 칼들이 숲과 산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인간세계 육십 겁(劫)이 지옥의 하루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벌을 받는 지옥 중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살아생전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고 늘 성내는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다. <지장경>에서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기를 "칼날 같은 이빨과 번갯불 같은 눈을 가진 많은 야차와 악귀들이 구리로 된 손톱으로 죄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야차는 커다란 삼지창

늘 성내는 마음 품고 살면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
수행자가 시물 탐내는 것은 삼악도 죄악 보다 커

날 사이로 죄인의 몸이나 입과 코를 사정없이 찔러 대기도 합니다. 등과 배를 창끝에 꿰어 공중 높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젓다가 뜨거운 평상 위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쇠로 된 송곳매는 죄인들의 눈을 쪼아 먹기도 합니다. 쇠로 된 뱀은 죄인들의 목을 칭칭 감아 조이기도 합니다. 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빠짐없이 박기도 합니다. 혀를 가느다랗게 쭉 뽑아서는 발을 가는 것처럼 그 위에서 쟁기질을 하고 창자를 후벼내어 토막토막 자르기도 합니다. 구리를 녹여 그 구리물을 입안에 사정없이 붓기도 하고 뜨거운 쇠줄로 몸을 꽉 조여 묶고 만 번 죽였다 만 번 살아나게 하기도 합니다. 지은 업의 과보는 이러한데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아귀 세상은 귀신들이 사는 곳이다. 야차나 나찰 귀신들도 이곳에 살지만 아귀들의 숫자가 제일 많으므로 아귀도(餓鬼道)라고 부른다. 아귀라고 불리는 까닭은 속이 비어 늘 굶주리고 두려움과 겁이 많기 때문이다. 이 귀신들은 여위고 수척하여 추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굶주린 아귀들은 그들의 과보가 끝나 다른 몸을 받기 전까지는 음식을 보아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깊은 바다 속이나 음침한 숲 속에 살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할 세월이 언제 다할지 모른다고 한다. 이들은 살아생전에 탐욕과 질투심이 많아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이나 법을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아귀도에 떨어져 늘 굶주린 채로 칼질이나 몽둥이찜질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축생이란 이름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집에서 길러 양육시킨다는 뜻에서 얻어진 것이니,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새들을 주로 가리킨다. 짐승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해치고 힘센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입가에 핏덩이를 물고 으르렁거린다. 또한 사람들이 짐승들을 기를 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새끼를 빼앗기도 하며 잡아먹기도 하니 온갖 극심한 고초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축생이 된 까닭은 살아생전에 도둑질을 하기,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온갖 수단으로 남의 공부를 방해하기 등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경전을 여는 첫머리에 나오는 개경게(開經偈)에서는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고 하여,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은 백천만겁이 되어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나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가사'를 걸친 수행자로서, 인과를 믿지 않고 신도의 시물만 탐내어 짓게 되는 온갖 죄악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삼악도의 죄악보다도 더 크고 무겁다고 한다.

故人云 今生未明心 滴水也難消 此所以袈裟下失人身也 佛子佛子 愼之愼之.

옛 어른께서 이르기를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 시주 은혜를 갚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가사 입은 수행자로서 사람의 몸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여, 분발하고 분발할지어다.

<영소무벽기(英邵武壁記)>에 이르기를 "깨달음을 얻고 후학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데에 대장부의 뜻을 둘 일이지, 함부로 사욕을 부려 한 몸의 영달을 꾀하다가 만겁의 재앙을 만들지 말라. 삼악도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니 가사 아래서 사람의 몸을 잃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또 동산양개(洞山良价) 스님이 어떤 학인에게 "이 세상에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가사를 입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라고 하였다.

야운 스님도 <자경문(自警文)>에서 "가사를 입은 수행자로서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 시주 은혜를 갚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니, 법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저녁으로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 알림 : 지난호(625호) 본 연재의 제목은 '<66> 수행자는 한 덩어리 숫돌과 같아' 입니다.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만발공양(萬鉢供養)

서울 조계사는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는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왜 이름을 '만발'이라고 지었을까?

만발(萬鉢)은 만 개의 발우를 뜻하는 말로 불가에서 이루어지는 만발공양(萬鉢供養)을 뜻한다. 만발공양은 절에서 발우에 밥을 담아 대중에게 베푸는 공양. 부처님 생전 발우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 데서 유래됐다고 전해온다.

초기불교에서는 출가자는 신도들에게 법을 설하며 법을 보시하고 재가자는 수행자를 위해 옷 음식 약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보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도가 출 · 재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면서 사찰과 스님도 재보시의 주체로 등장한다.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사찰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구휼처의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다.

교리적 근거는 부파불교에서부터 생겨났다. 승단에 들어온 시줏물을 비구나 비구니가 모두 소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팔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설일체유부 등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은 불사나 공공복지에 사용했다.

부파불교에서 생겨난 공양물 보시에 대한 공덕의식은 이후 대승불교에서 보시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열반경>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공덕을 가진 것으로 굶주리는 자를 먹이는 공덕을 첫 번째로 인정할 만큼 만발공양은 사찰이 불자들에게 베푸는 대표적인 재보시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9>



상담의 종류

심리 상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삶의 양상이 복잡해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우선 상담 형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의 대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상담, 상담자 및 각 집단 구성원의 역동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상담, 비슷한 연배나 비슷한 성장 수준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상담(또는 또래상담), 상담 수련생이 숙련된 상담 전문가로부터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해 지도를 받는 슈퍼비전, 상담 수련생이나 상담가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내담자가 되어 숙련된 상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교육 분석 등이다.

'개별 교설' '대중문답'은 개인상담 · 집단상담 유사
편안한 임종 위해 법문하는 모습 호스피스의 면모

상담 매개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면접 상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화상담,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상담 등이 있다.

내담자에 따라서도 상담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노인 · 성인 · 대학생 · 청소년 · 영유아 · 부부 · 가족 상담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서 하는 거리 상담, 독거노인 등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거나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 상담, 임종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활동 등이 있다.

부처님의 교화 활동에서도 오늘날의 상담의 종류와 비슷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과 질문자가 1대1로 문답을 주고받는 개별 교설은 오늘날의 개인 상담과 유사하며, 부처님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제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대중 문답은 집단 상담과 흡사하다. 하지만 개별 교설에는 아난다 존자가 배석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단 둘이서만 진행하는 현대 상담과는 차이가 나며, 대중이 궁금한 사항을 부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해 부처님이 답하는 대중문답은 집단 구성원 간의 심리적 역동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집단 상담과 구별이 된다.

이밖에 부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수행 방법이나 진리에 대해 논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은 현대의 동료상담과 비슷하며,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반 신도나 외도를 대상으로 설법을 한 뒤 옳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부처님께 점검 받는 모습에서 오늘날의 슈퍼비전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이 거리에서 직접 외도나 신도를 만나 교화를 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거리 상담에 견줄 수 있으며, 병으로 죽어가는 제자를 직접 찾아가 법문을 해줌으로써 편하게 임종을 맞게 해주시는 모습에서는 오늘날의 호스피스 활동과 비슷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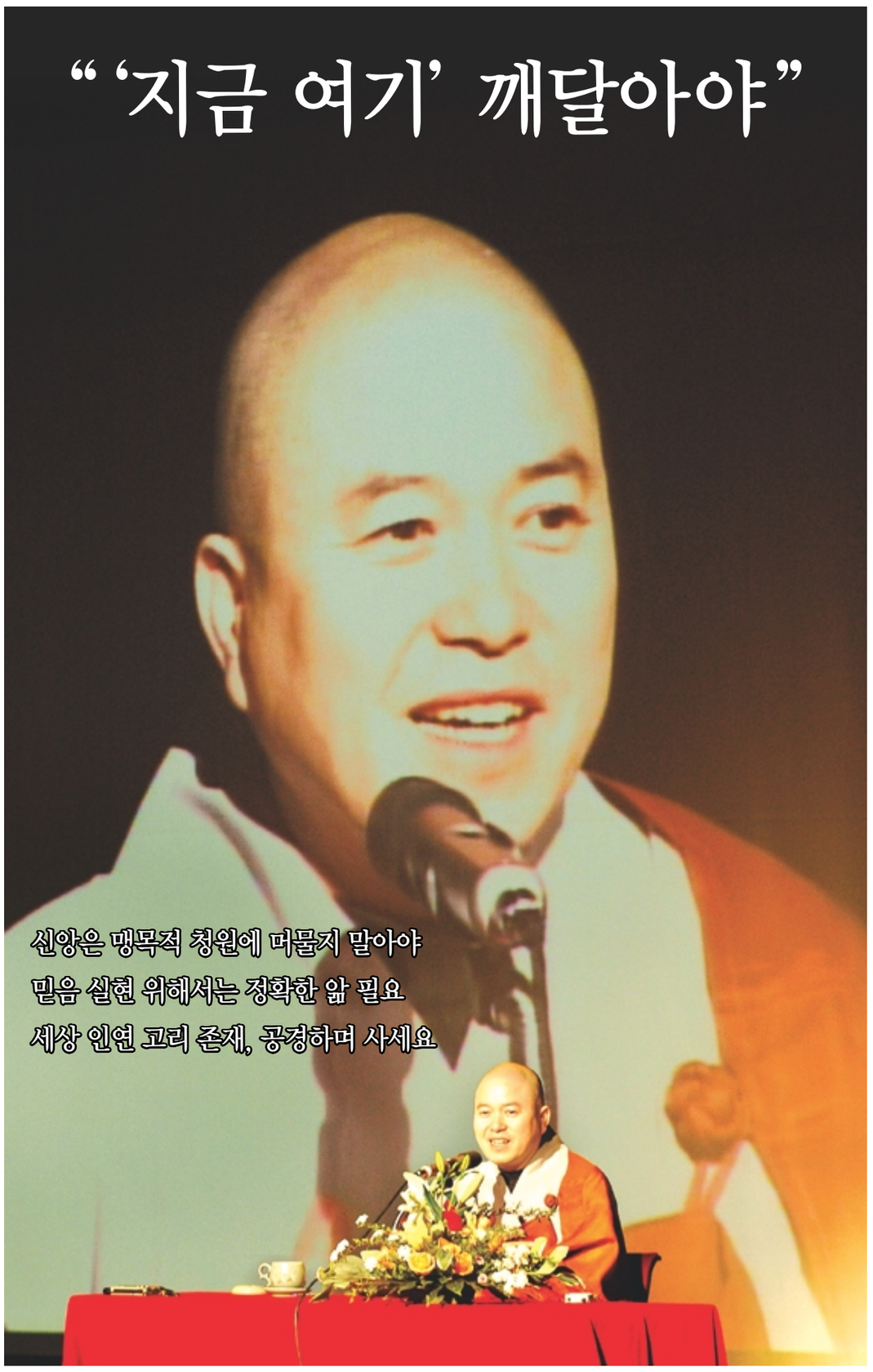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을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양해 바라옵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 서 명	저 자 명	보관수량	가 격
~~望月佛敎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절판~~	~~350,000~~
~~佛光大辭典 (全8권)~~	~~臺灣佛光寺~~	~~절판~~	~~200,000~~
佛書解說大辭典 (全14권)	小野玄妙	1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 (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山	2	100,000
慧遠硏究 (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2	580,000
韓國近世佛敎百年史(全2권)		29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염송(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절판~~	~~200,000~~

“‘지금 여기’ 깨달아야”



빛고을불교아카데미(제2강 : 解)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4월 25일

이번 기획법회 ‘행복한 삶으로 가는 네가지 디딤돌 –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신앙체계, 즉 수행체계를 요약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화엄경에 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의 수행체계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신해행증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지만, 각각 떼어서 여러 스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법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른 앎, 즉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이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법회의 대주제가 행복한 삶으로 가는 네가지 디딤돌인데, 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편안한 것, 불편함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늘 여여(如如)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자든 아니든 누구나 행복을 좇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네 가지 디딤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信),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바른 이해(解)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불교는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불교 특징 중의 하나이고 21세기 과학문명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로써 지금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세계의 지성들이 불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참가자들의 모습.

지구상에서 있었던 종교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일단 믿고 봐라’ 이렇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일단 믿고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아라, 분명한 이해를 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끝나면 단순하게 끝납니다. 이것을 1차적인 신앙형태라고 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신앙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때, 특히 원시종교를 믿을 때 1차적 신앙형태가 마음속에 형성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고, 속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종교를 구합니다. 교주에게 구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 달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달라’, ‘승진하게 해 달라’ 등등의 청원하는 형태를 1차적 신앙형태라고 합니다. 누구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두운 데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확 밀었어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머니’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르면서 당신이 늘 존경하는 분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스님은 부처님 혹은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1차적 신앙형태입니다.

2차적 신앙형태는 왜 내가 종교를 믿는지, 왜 교주가 그렇게 말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3차적 신앙형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신앙형태입니다. 스님 중에서도 선적인 예지, 직관력이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지와 우주의 업을 정확히 꿰뚫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음씀씀이나 행동이 진리에 맞게 하는 것,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을 3차적 신앙형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신앙형태를 분석해 보면 1차적 신앙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2차적, 3차적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차적 신앙형태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복불교를 비판하는데 고등종교라 할 지라도 1차적 신앙형태는 밑바탕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맹목적이거나, 자신만의 바람이나 청원에 머무르지 않으면 됩니다.

사성제 팔정도에 보면, 특히 팔정도 중에 정견과 정사 정사유가 있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본다.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른 가치를 안다. 그런 뜻이죠. 정사, 정사유는 바르게 사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팔정도 중에 신해행증 중 해(解)에 해당합니다.

정견(正見)은 불교의 시작이면서 불교의 종착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실천을 하려면 먼저 믿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 즉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천도 하고 그러는데, 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증사작반(蒸沙作飯)’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래로 밥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런데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연기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거든요. 경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했어요. 정견에는 세간적 정견과 출세간적 정견이 있다고 합니다.

‘세간적 정견’은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철학적으로 증득하지 못할지라도 머리로 이해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물줄기가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간적 정견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 하는 이런 것입니다. ‘출세간적 정견’은 바른 증득이 되었을 때 출세간적 정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解의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하면 연기법입니다. 불자들은 뭘 믿어요.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인과법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해(解)에서는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법이 뭐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를 말합니다.

연기(緣起)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연기법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제 강의를 듣고 있죠. 이게 뭐냐하면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이 장소 이 시간에 법회를 하고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추적해보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조건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원인입니다.

어떻게 법회를 구성할 것인가? 신해행증 법회하기 위해서 팜플렛, 강당대관, 무수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런 법회를 하기 위해서 인(因)과 연(緣)과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연기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연기법을 가르칠 때는 실천하는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연기법을 관념적으로 가르치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고. 그래서 저는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첫 번째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늘 공경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을 하실 건데, 실제 연기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윗 어른, 윗사람, 조상, 스승을 공경하라 그럽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나를 낳아준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라가면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런 식으로 쭉 이십대만 올라가다 보면 이백만, 삼십대만 올라가면 이십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연의 고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디자인 하신 분, 의자설치, 조명, 마이크 등등 많은 분들의 합작품이 이 구체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뭐냐. 공존입니다. 함께 있음, 함께 있을 때 느껴야 할 것이 행복감, 기쁨입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쁜 공간, 함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다른 측면에서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생태계는 공존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파괴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런 피해는 어마어마 합니다. 오존층이 엷어지고 있어요. 연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멸법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촉해서 멸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연기법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서야 합니다. 흔히 많은 수행과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알고 믿어서 이해하고 실천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떨어진 저 먼 곳에 먼 훗날에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법을 실천하려면 늘 마음이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저 과거에 있든지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음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법문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집에 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보시면 ‘지금 여기’가 되면 수행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지금 여기를 깨닫는 것이 연기법을 실천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제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알고 바르게 실천해서 바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연기법적인 사고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전에는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가 좋아야 했고, 요즘은 EQ(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IQ, EQ 다 좋아도 안 됩니다. 지금은 IQ와 EQ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영성지수 SQ(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와 NQ(network quotient 공존지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적법인 삶, 사유를 했을 때 네트워크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세상을 리더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인들은 공존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수행이 잘 되신 분들은 무아(無我)가 되기 때문에 주위가 늘 편안한 것입니다.

연기적 앎 즉 이해가 분명했을 때 바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완전한 믿음이 되고 완전하게 알았을 때 바로 실천이 되고 실천을 할 때 바로 깨달음이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바탕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했을 때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디딤돌을 굳게 디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조영훈(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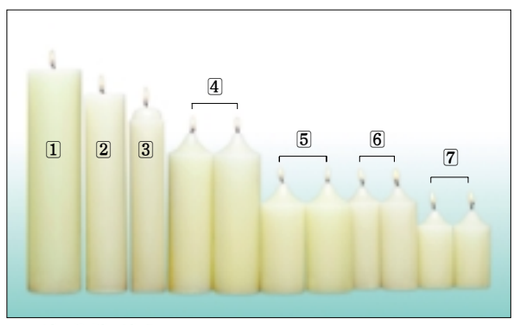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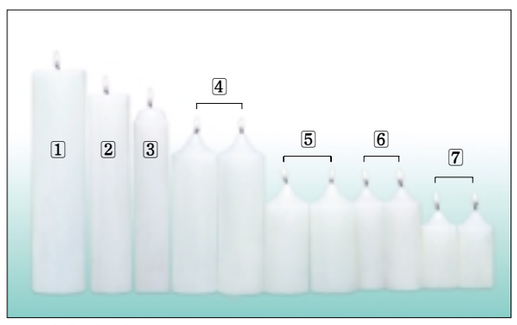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 식물성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월 스님(4)

미나미 총독, 진리를 일러 주십시오
혜월 스님, 귀신 방귀에 털난 소식이다

일제 말기, 미나미 지로(南次郎 · 1874~1955) 총독이 남방에 큰스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부산 안양암에 주석하고 있던 혜월(慧月 · 1861~1937) 스님을 참방하여 인사를 드렸다.

"스님의 도에 대한 명성은 일찍부터 잘 듣고 있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자 했으나 이제야 뵙습니다."

총독은 절을 하고 "부처님의 아주 깊고 높은 진리를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라며 법을 청했다. 이에 혜월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귀신 방귀에 털 난 소식이니라."

총독은 한동안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일행과 더불어 덤덤하게 돌아갔다. 총독이 혜월 스님에게 한 방망이 크게 맞았다는 소문이 불교계와 총독부에 자자하게 퍼졌다. 총독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소문에 분개한 총독부의 한 무관이 스님을 단단히 혼내 주리라 작정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는 방문을 걸어차고 들어가, 참선하고 있는 스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내 칼 받아라. 그대가 혜월 스님인가?"

"그렇다. 내가 혜월이다."

하고 스님이 손가락으로 그 무관의 등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 보아라."

뒤를 보는 찰나, 스님이 벌떡 일어나 무관의 등을 치며 소리쳤다.

"내 칼 받아라."

그러자, 무관은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선 큰절을 하고 항복했다.

일제강점시대 조선 권력의 제1인자인 총독의 위세를 가볍게 눌러 준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에도 태연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은 깊고 깊은 무심(無心)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묘한 지혜작용이 아닐 수 없다. 혜월 스님이 총독에게 조금이라도 위축된 마음이 있었다거나, 무관의 칼날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면 한국 선종의 존엄과 스님의 목숨은 한 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위풍당당하게 혜월 스님을 참방한 총독은 '불법의 진리를 설해 달라' 며 그물을 던지지만, 백전노장인 스님의 '귀신 방귀에 털 난 소식' 을 접하고는 더 이상 입을 뗄 수 없었다. 형상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귀신도 허무한데, 그 귀신이 방귀를 뀐다는 것, 더군다나 그 방귀에 털이 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도리는 총독이 아니라 총독 할아비도 알 수 없는 진리의 암호인 것이다.

생기는 것 사라지는 것 없는 무생법인의 가르침 상징
'초월' 의 자리서 나온 법문

이와 관련, 혜월 스님의 사제인 만공 스님은 이런 법문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

"참된 말은 입 밖에 나가지 않나니라. 허공에 뼈가 있는 소식을 알겠느냐? 귀신 방귀에 털 나는 소식을 알겠느냐? 등상불(等像佛)이 법문하는 소리를 듣겠느냐? 생각이 곧 현실이요, 존재니라. 생각이 있을 때는 삼라만상이 나타나고, 생각이 없어지면 그 바탕은 곧 무(無)로 돌아가나니라."(만공 법어집)

귀신 방귀에 난 털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에 본래 사라지는 것도 아닌 무생법인(無生法忍: 일체가 불생불멸임을 깨닫는 것)을 상징한다. <반야심경>에서 "일체의 존재가 공하여 실체가 없으며,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諸法空相 不生不滅)" 는 의미와 같다.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해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시기' 를 알려면 구구한 지견풀이를 잊고, 귀신 방귀에 털 난 소식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김성우 객원기자

"화두공부는 간절함이 전부다"

봉화 축서사 철야정진법회…무여 스님 '노파심절' 로 지도





축서사 설선당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무여 스님(위)과 법문을 듣는 불자들.

중앙고속도로에서 풍기IC나 영주IC로 나와서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골길로 다시 8km를 더 들어간 오지. 해발 1206m의 문수산 정상 바로 아래 언덕을 연화대로 삼아 웅장하게 자리 잡은 축서사. 이런 풍광 좋은 외진 곳에, 게다가 해가 저무는 저녁시간에 재가 수행자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도심에서도 모이기 힘든 300여 불자들이 주말 휴가를 반납하고 산사를 찾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마치 잉어가 청정수를 찾아 물길을 따라 오르듯 훌륭한 선지식과 편안한 도량, 좋은 도반을 만나기 위한 본능적인 몸짓이 아닐까.

4월 21일은 매달 셋째 주말에 열리는 축서사 철야참선정진의 네 번째 법회 날이다. 서울 봉은사 신도 33명을 포함한 300여 수행자 가운데 거사들도 50여명이나 눈에 띈다. 지난 1월 등록한 260여 불자 외에 40여 명이 늘 추가로 참석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저녁 9시부터 대웅전에서 열린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의 참선법문이 시작되자 이 곳 수행 분위기가 감지된다. 참선 초보자에서부터 구참자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법문들을 자상하면서도 간곡하게 일러주는 모습에 환희심이 절로 난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화두도 진의(眞疑)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는 참선자의 뜻과 정성, 믿음과 발심에 달렸습니다."

무여 스님은 '화두 공부는 간절 절(切)자 한 자면 족하다' 고 거듭 강조한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심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칠 · 팔십 된 노파가 전쟁터에 나간 외아들 생각하듯이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키라는 것.

"화두가 간절히 들리면 선악(善惡)의 망상을 떠나게 되고, 해태와 방일이 있을 수 없으며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마(魔)가 들어올 틈도 없으며, 분별심이 나지 않아서 외도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화두가 간절하지 못하면 화두 참구가 아니고, 화두의 간절함을 모르면 공부인이 아닙니다."

스님의 노파심절(老婆心切)한 법문은 대중들이 한 사람이라도 못 알아들을까봐 조용하면서도 느리게 이어진다. 한 마디, 한 마디에 당신의 체험을 담아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화두 간절히 들면 망상 떠나게 되고
무기에 떨어지지 않고 분별심 안나
"오매일여의 선정에서 진일보 하라"

"화두가 깊은 잠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아아! 생사(生死)가 둘이 아니구나, 인간의 본성은 죽거나 없어지지 않고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도 담담해지고 자신만만해집니다."

화두가 점점 깊어지고 순숙(純熟)해지면 크고 뚜렷하게 되어 하나의 의심뭉치, 의단(疑團)이 된다. 나와 화두가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는 이 시절에는 화두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어둡지 않고, 하루 종일 화두가 간단없이 여여(如如)하며, 깊은 꿈속에서도 한결 같이 들린다는 경험담이다. 옛 어른들이 "타성일편을 못 깨칠까 걱정하지 말고 타성일편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라"고 한 법문이 이것이다. 그러고 보면, 무여 스님의 가르침은 성철 스님이 강조한 몽중일여, 숙면일여를 통한 구경각의 증득이란 수행관과 맥을 같이 한다.

"깨달음, 확철대오는 반드시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선정에는 들어야 하고, 오매일여가 되어도 은산철벽을 투과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 해야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해야 생사자재(生死自在), 생사해탈(生死解脫)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이상은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조금 지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깨쳤다', '내가 해마쳤다' 는 생각을 절대 말고, 그럴수록 더 지극하게 밀고 나가야 참으로 깊은 경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당부는 착각도인들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수행풍토에 경책이 되는 소중한 법문이다.

헛기침 소리도 나지 않는 가운데 이어진 1시간여의 설법은 그야말로 마음 땅에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심지법문(心地法門)이었다.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으로 더욱 각오를 다지며 선열당과 심검당 선방에 나눠 앉아 주리를 튼다. '탁! 탁! 탁' 죽비 삼성이 울리자 축서사는 돌연 깊은 정적에 휩싸인다. 입정(入定)한 재가 선객들은 새벽예불 전까지 선정에 든 채 화두삼매의 법열을 즐겼으리라.

축서사가 이처럼 재가 선객의 총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여 스님의 10여 년 간의 중창불사가 오로지 출 · 재가를 위한 수행 및 교육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틈틈이 진행한 재가자 대상의 참선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수행자를 모이게 한 실제적인 원인이 됐다. 선지식의 선법문과 실참, 선병(禪病) 치유, 문답 및 지도점검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보기 드문 참선도량이란 인식이 소리 소문 없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다. 24년 참선경력의 달마 김준영(48 · 서울 석촌동) 거사는 "10여 년 전부터 무여 큰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도점검을 받으며 조주 '무자' 화두를 들고 있다"면서 "큰스님의 자상한 가르침으로 내생에도 '무자' 화두로 정진하고 싶을 정도로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중창불사 회향을 목전에 둔 축서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철야참선법회를 통해 간화선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이후 무여 스님의 조사어록 강의를 중심으로 참선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054)672-7579

봉화 축서사=김성우 객원기자

수 행 게 시 판

월정사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5월 11~13일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좌선법 강의 및 지도, 철야정진, 전나무숲길 포행 한암대종사 탄신재, 한암 대종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 (033)332-6661

수선회 참선교육
5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조계사 인근 원당빌딩 4층 선방에서. (02)732-5960

천안 호두마을 집중수행
평등 스님의 지도로 5월 4~9일 및 24~29일 집중수행을, 11~13일, 18~20일 주말수행을 실시. (041)567-2841

만일염불결사회 철야 염불정진
성남 정토사에서 5월 19일(셋째 토) 오후 8시부터 철야 정진. 보광 스님이 염불정진 도중 의문사항을 문답으로 점검해준다. (031)723-979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평생부자 지갑
옴마니반메훔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 金나노 중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 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품 손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 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어려움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빼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⑬ 인과를 벗어나는 법

남편과의 갈등

K씨가 절에 다니게 된 것은 3년 전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된 후였다. 애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화장품 방문 판매를 나서게 되었다. '남의 돈 벌기가 이리도 힘드는구나.' 마음으로 울며 지내던 어느 날 발길이 우연히 닿은 곳이 절이었다. 경내에 들어 선 순간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거운 화장품 가방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 채 법당까지 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절을 올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마냥 좋아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에 왔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이야기 끝에 "오늘 절에 갔었어요"라고 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발끈했다. "절에는 뭐 하러 가!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K씨는 화가 났다. "아니 절에 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마음 편하고 좋기만 하던데" "안 돼. 앞으로 다시는 가지 마."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절에 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경전을 읽다가 깜빡 잊고 그냥 놔두고 부엌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틈에 왔는지 남편이 난리가 났다. "이게 뭐야. 당신 또 절에 갔어?" 이런 식으로 절에 가는 것을 싫어하였다. 초하루나 보름법회에 가는 것을 알고는 아침부터 나가지 않고 지켰다. 오전 법회시간에 못 가게 점심까지 차려내라는 것이었다. "그까짓 절에 가면 뭐 해! 돈이 생기기를 하나, 당신 사람이 달라지나, 무엇 때문에 가는 거야!"하고 구박했다. 도반들이 집에 전화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은 절에 안 가니까 연락하지 말아요!"하고 호통을 쳤다.

전생의 내 모습은

말로는 이길 수가 없이 막무가내였다. K씨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부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왜 절에 못 가게 하는 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한 건지요."

> 절에 나가는 것 결사 반대하던 남편
> 참회하고 현실 받아들이니 "나도 절에 가 볼까?"
> 놓고 놓아 내가 녹아야 상대 녹일 수 있다

K씨는 그날도 남편 몰래 절에 갔다. 참선한다고 앉아 있다가 깜박 잠이 든 것 같았다. 비몽사몽간에 어떤 장면을 보았다. 예전, 전생의 장면 같았다. 자신은 남자이고 부잣집 주인이었다. 현재의 남편은 자기 집 하인이고 다른 하인들도 여럿 있었다. 문간에 어떤 스님이 오시니까 하인들이 기쁘게 마중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일해야지 무엇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가지 못했다. 스님은 합장을 하시더니 그냥 가셨다. 장면이 계속 바뀌어도 스님만 오시면 못 본척했다. 하인들에게는 항상 거만하게 굴면서 막 대하는 모습이 영화장면처럼 나오고 있었다.

"전생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해요. 그런데 바로 저 자신이 그토록 스님을 멀리 하다니. 우리 집 남편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니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분하고 속상했겠어요."

인과응보라더니, K씨는 현재 남편이 자신에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남편이 구박하면 '그래, 내가 하인으로 막 대했었지' 하며 '미안해요, 여보,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며 마음을 다스려갔다. 같이 싸우는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말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절에 가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이 좋기는 좋나 보지" 하더니 "나도 절에 한번 가볼까" 하는 게 아닌가.

나부터 녹여야

우리는 수억 겁을 진화해 오면서 안 되어 본 것이 없고 안 해본 일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전생을 알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큰소리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전생에 무명(無明)으로 인해 아상(我相)에 젖어 상대에게 어떤 업을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놓고 놓아 내가 녹아야 상대를 녹일 수 있다"고 하셨다. 갈등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와의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만 탓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바로 보고 다스려가야 할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1번 절 할 때마다 100원씩 모금하는 3000배 정진기도법회를 개최한다. 일곱 번째 열리는 '난치병 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기도'는 5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02)723-5101

한마음선원 건강은빛교실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이 65세 이상 남녀 신도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건강은빛교실'을 개설한다. 5월 중 매주 금요일에 열리게 되는 건강은빛교실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몸만들기를 지도한다. 오전 9시 30분~10시 30분에 안양 한마음선원 심봉정에서 열린다. (031)470-3173

도선사 어린이 사생대회
서울 도선사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도선사 경내 일대에서 열리는 사생대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의미도 함께 담았다.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내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림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02)993-3161

해인사 제2회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
합천 해인사는 5월 12일 오전 11시~오후 4시 제2회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를 개최한다. 참가 가능한 분야는 그림부문이 수채화, 유화, 크레용화, 판화, 만화, 한국화, 조소, 공예 등이며 글짓기 부문이 시, 수필이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며 차량비, 점심, 간식, 보험가입, 행사소모품 등 일체경비는 해인사에서 부담한다. 접수는 5월 4일 오후 5시까지 해인사 홈페이지 (www.haeinsa.or.kr)에서 받는다. (055)931-1001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화를 이기고 (상)

이기용 서울시 은평구

조그마한 가게에 앉아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도 느낄 만큼 내 속이 옹졸해짐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염주를 돌립니다. 잠깐 틈이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염주를 한 알 한 알 돌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경북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거의 실명 위기에 있던 나이 많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손윗누이가 둘 있었지만 이미 남의 집 사람이었고 전국으로 흩어져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더 이상 학교에 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가끔씩 부산에 살던 둘째 누이가 연락 오면 버스가 지나가는 큰 길에 나가 누이가 사주는 옷이나 약간의 돈을 받아오기도 했죠. 자신도 살기 힘들어 장사하느라 바쁜 누이가 시댁의 눈치를 보며 몰래 몰래 모은 돈으로 사온 옷이었습니다.


그림: 문병성

> 가난했지만 성실히 기술 배워 상경
> 배우지 못한 설움…누이들 원망

누이는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같이 맘 놓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버스가 큰 길을 지나갈 때 버스 창문 밖으로 둘둘 묶은 덩어리를 던져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쳐지나가듯 잠깐 누이의 얼굴을 보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렇게라도 누이를 만나던 날은 행복했습니다.

좀 더 큰 후 누이에게 들어서야 왜 그때 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습니다. 의처증이 있던 매형은 누이가 타도시로 물건을 사러 나가면 버스 시간까지 재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 만나러 갈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식같이 생각하던 동생을 한 번 안아봐 주지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 한 번 맘 편히 볼 수 없어 누이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저 온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누이들에게 기댈 수도 없었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악착같이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나이 어린 저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보일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몇 년을 그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을 배울 수는 없었던 시절이었죠. 틈틈이 등 너머로 보면서 조금씩 보일러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재주는 있었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편이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당할 때마다 다시 무시당하는 일 없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술을 배우던 저는 주변으로부터 일처리가 꼼꼼하고 손끝이 야물다는 소리를 들으며 보일러 설치를 저에게 맡기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나온 제가 기술자가 됐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보일러 기술로 먹고 살만해진 저는 제가 있는 곳보다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인정받아 봐야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정도면 서울에서도 인정받을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기술공으로 일하려 했지만 시골에서 먹히던 기술이라며 저를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고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만 하는 생활이었지만 성실한 제게 조금씩 야채도 다듬고 칼도 쥐어보는 기회가 온 거죠.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앞으로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꿈도 가지게 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차례차례 상경한 다른 누이들과 오랜만에 한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 때보다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어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바랄 수는 없었습니다. 누이들도 살기에 힘겹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조카를 보니 왜 나는 누이들이 공부시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외삼촌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도 뒷전이었는데 왜 누이들은 어머니처럼 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외삼촌과 저를 비교하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하지 못했던 한이 내 안에 차곡차곡 들어차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한이 먹고 살기에 공부한 이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나를 공부시켜 주지 않았던 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이 부유할 때 부잣집으로 시집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어렵게 살던 누이에게도, 집안이 몰락해 빚을 갚느라 팔려가듯 시집간 누이에게도 원망만이 쌓여갔습니다. (계속)

新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미르아이
마음의 바다과 법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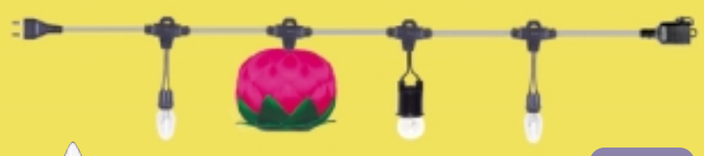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유식禪思想 釋明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마음 열면 가족이 보여요



“흥분은 금물 차근차근 대화 하세요”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 많아야
“표현 방식만 조심하면 싸울 일 없죠”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다. ‘나’는 어떻게 인연이 되어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족은 고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까운 상대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법.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에게도 잘해주자고 다짐하면서도 늘 그러지 못해 후회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 가장 친한 가족 ‘엄마’

청소년들이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늦잠이라도 자려면 깨워서 학교 보내고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엄마. 가장 가까운 식구다.

‘엄마’와는 자주 마주치기에 비교적 갈등이 심하지 않다. 그러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도 크다. 엄마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박영임 상담원(청소년사이버상담원)의 조언처럼 해보자.

“엄마가 어떤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방청소를 예로 들면, 옷을 잘 안 걸어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지, 책을 다 꽂아야 엄마가 깨끗하다고 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는 거죠. 그런 다음, 친구들과 엄마에게 자신이 노력 한 부분을 이야기해 봐요.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엄마는 어떠시냐,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보시기에 부족할지 걱정이 된다’ 고요. 엄마와는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빠랑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주위에 아빠랑 잘 지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아빠랑 제대로 이야기한 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소영(서울보성여고 1)이에게 아빠는 거의 ‘잊혀져버린 존재’다. 주중에는 아빠가 바빠서, 주말에는 자녀가 시간이 없어서 엇갈리기 일쑤다.

청소년과 아빠의 문제는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기 아이들도 말수가 줄고, 아빠도 말이 없어서 아예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 이렇게 놓아두면 청소년과 아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갈 뿐이다. 한 번 충돌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

아빠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서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사찰의 자비명상 프로그램이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단절의 정도가 심하다면 전문 가족상담실을 찾는 것도 좋다. 해결의 실마리를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서로 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들과 아빠는 서로 사랑으로 이어져 있고,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형제 · 자매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요

“내 동생은 방청소를 절대 안 해요. 얄미워죽겠어요.”, “부모님이 오빠만 좋아해요.”

형제자매처럼 또래상담에 유리한 상대는 없다. 서로 관심사가 비슷해서 부모님보다 오히려 말이 잘 통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무섭게 싸우게 되는 것이 형제자매. 사람들이 비교해대는 통에 괜히 경쟁관계가 되기도 한다.

서울청소년종합상담실 소수연 교육연구팀장은 “형제자매간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갈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며 “습관적으로 툭툭 건드리거나 시비조로 이야기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청소년들이 드물다. 명절 때 찾아뵙는 정도. 조부모가 그저 사랑스러운 손자손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부모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조부모 성함 알아내기부터. 의외로 조부모의 함자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왕이면 한자까지 알아두는 편이 좋다. 한자로 조부모님 성함을 써서 보여드리면 어떤 선물보다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안부전화를 자주 드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은경 선임상담원은 “사람의 관계는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있어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조부모와의 관계는 가족 간의 동질성 찾기에 함께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강진 객원기자

※ 가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바다상담실 www.w1316.org/haesol2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www.teen1318.or.kr

열린가족상담센터 www.familyss.com

한국청소년상담원 kyci.or.kr

효도하자 www.hyodohaja.com

한국가족상담센터 (02)525-0618

(이외에도 각 시 · 군 · 구에 청소년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방상담도 가능하다)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9월 2일까지 ‘오르셰 미술관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밀레의 ‘만종’, 고흐의 ‘고흐의 방’,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등의 세계적인 명화도 관람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02)322-0071

광주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는

다양한 ‘빛’ 문화를 모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야간문화축제 ‘한 · 중 수교 15주년 기념 빛고을 광주 빛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대형등 50조, 공예 및 소형등 1만2000점이 전시, 광주의 밤을 밝히는 이번 행사는 진시황병마용전, 희망의 등 올리기, 마임 · 마술 · 페이스페인팅, 소망의 등 · 엽서 달기 등으로 꾸며진다. 6월 24일까지. (062)974-0513

부산 벡스코 1홀에서는

제2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각종 마술쇼와 마술강연, 마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5월 2일~6일까지. (051)628-0935

청주 예술공장두레 야외공연장에서는

‘제3회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전통 농촌마당극들이 풍물굿, 인형극, 마당극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된다. 짚공예품 전시, 벽화그리기, 주먹밥 만들기 등도 즐길 수 있다. 5월 4일~6일까지. (043)211-0752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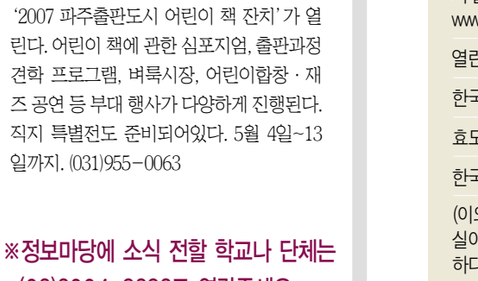
‘2007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 잔치’가 열린다. 어린이 책에 관한 심포지엄, 출판과정 견학 프로그램, 벼룩시장, 어린이합창 · 재즈 공연 등 부대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직지 특별전도 준비되어있다. 5월 4일~13일까지. (031)955-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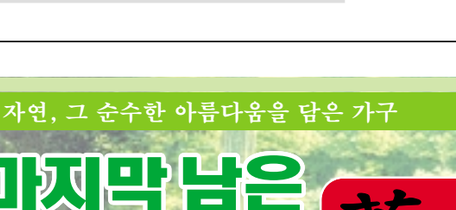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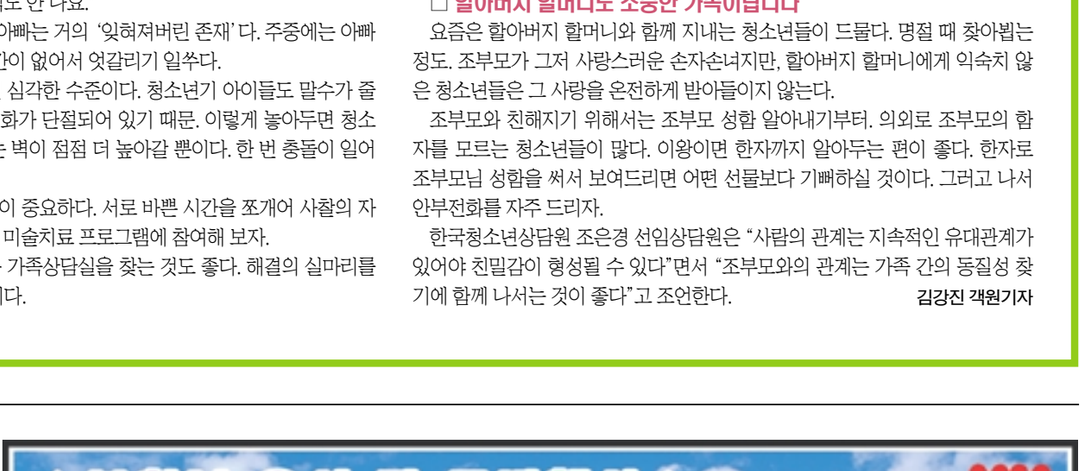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부처님 오신 달 특별행사★
당일코스 일반여행
봉 신륵사 + 부석사 + 청량사 축
삼사찰 순례여행



신륵사
여주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봉미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서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강가쪽 험한 위에 벽돌로 쌓은 다층전탑이 있어서, 고려 때부터 벽절이라고도 불렸다.

부석사
신라 문무왕 18년(676년) 해동 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 고종의 신라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닦은 화엄교학을 펴기 위해 귀국하여, 이 절을 창건. 우리나라 화엄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청량사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형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봉수지락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육봉(12봉우리)이 연꽃임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술자리이다.

■ 날짜 : 2007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매주 월, 수, 토, 일 출발]
■ 코스 : 서울 - 여주신륵사 - 영주부석사 - 봉화청량사 - 서울
■ 회비 : 37,000원 [왕복교통비, 조식, 중식, 석식, 입장료, 봉사료 일체포함]
※ 석가탄신일은 가은 봉암사로 -> 탄금대 - 중앙탑/앙성온천(둘중선택)(음력 4월초팔일날)

■ 출발시간
07:00 영등포 구청역 1번출구 외환은행 앞
07:30 서울역 9번출구 대우빌딩 앞
08:00 잠실역 3번출구 너구리상 앞

www.dongbaektour.co.kr
인터넷주소창에 ‘동백여행사’라고 치세요.
전화주시면 여행정보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계좌번호: 농협 046-02-119148 [동백여행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대화를 하다가 말이 막히거나 이름 등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둘러대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거시기'라는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호남지방의 어른들이 특히 많이 쓰는 '거시기'란 말은 참으로 묘한 느낌을 주지요. 놀라운 것은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주 '거시기'란 말을 하고 그때마다의 의미가 다르더라도 알아듣는 다는 것입니다. '거시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군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뭔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우다 : 사람이나 동물을 건드리어 성나게 하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섣불리 거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거저 : 치르는 값이나 조건이 없이. 힘들임 없이. 무료로. "이 물건은 네가 거저 가져가라."

거탈 : 겉으로 드러난 태도 "사람을 볼 때는 거탈만 보지 마라."

걸개그림: 건물의 내벽이나 외벽에 걸 수 있도록 만든 그림. 이런 그림은 한때 대학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요.

고지말랭이: 호박, 가지, 고구마, 무를 가늘고 길게 납작 썰어 말린 것.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자신이 '독충'으로 변한다면…끔직하죠!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카프카作 '변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나서 필자가 쓴 '붕어빵'이란 시의 첫 연을 먼저 소개할게요.

오! 그레고르여, 지금 그대의 풋내 나던 前生을
시퍼렇게 이글거리는 화덕 불에 내맡기고 기억의
불꽃 출렁이는 불바다에서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몸을 뒤척이고 있군요 열기가 더할수록 자꾸 부풀어 오르는 말의 외로움, 한번 의식을 잃으면 돌아올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영영 빠져들 것 같아 팽팽하여 오히려 불안한 공기 속에서도 자꾸만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그대

독신인 그레고르는 5년 전에 파산한 일가의 생계를 떠맡는다. 양친의 빚을 갚기 위하여 속으로는 혐오하면서도 옷감의 외판원으로서 1년 내내 시간에 쫓기면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가 매월 가지고 오는 돈은 약간의 자기 용돈을 제하고는 거의 다 가족에게 내준다. 그는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는 누이동생을 음악학교에 넣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 보니 자신이 한 마리의 거대한 독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일꾼을 잃은 일가에서는 아버지가 초라한 차림으로 직장으로 나가고 어린 누이동생도 일터로 나갔다.

한 방에 감금되어 있던 그가 어느 날 어머니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실신하고 만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의 등에 박혀 중상을 입는다. 가족들은 그를 내쫓으려고 든다. 부상이 악화되고 자신이 죽어야 하겠다는 각오 아래 그는 조용히 죽어간다.

그의 죽음을 안 가족들은 그때서야 안심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오래간만에 들놀이를 나간다. 양친은 성숙한 딸을 쳐다보며 사윗감 고를 걱정을 한다.

소외가 '보편화'된 현대사회 비판
되돌아 보는 삶의 중요성 일깨워

그레고르의 영혼은 환경에 매도당하고 회사나 가정의 톱니바퀴 아래 짓눌려 있어요. 꿈결 속에서 돌아온 영혼, 본래의 자기 자신은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위협하는 독충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기에 카프카의 새로움이 있지요.

이 소설은 자기 소외가 '보편화' 되어버린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독충이 되어 파멸하는 자가 실은 자기의 본심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의식하는 자가 구제될 수 있는 것이며, 소위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현세의 온갖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소설의 비극성은 그레고르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따라서 구제될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요. 자기 본래의 모습, 그것이 어디까지나 독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소설과 전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현대의 공포와 심연이 있는 것이라고 할까요?

카프카는 자기 본래의 영혼을 외부세계에 매도해 버린 현대인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웁니다.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을 매도해 버린 편이 오히려 건전하게 보이는 현대적 생활에서 그의 관심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버린다면?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거나 죽이려고 한다는 상상! 아찔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른 존재로의 '변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가정을 통한 자기 점검의 기회가 필요하기도 하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서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레고르는 그러한 인간 사회의 심층을 '변신'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는 안내자인 셈이에요. 그의 변신은 일상을 들여다보는 보다 적극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신을 꿈꾸시나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들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한창 공부해야 할 고2인데, 친구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예전에는 너무 친해서 선생님이 떨어뜨려놓을 정도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애들이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ID:답답해)

상처 될 언행 한 적 없나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내가 과연 그 입장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처음에 친구들이 차갑게 대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냈겠지요. 그래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 조금은 두렵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2학년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찜찜한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친구 마음도 불편할 것 같지요?
우리 한 번 곰곰이 한 번 생각해보아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는 존재랍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언행을 한 적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아요. 혹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너무 혼자 속을 끓이기보다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친구에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화해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은요?
자신의 심정과 지금의 느낌과 상태에 대해서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통해 방명록이나 쪽지를 보내 보세요. 예전에는 선생님께서 억지로 떨어뜨려 놨다고 할 정도로 붙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먼저 한 번 용기를 내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세계)



Q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장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 제품임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
조립식 건축 | H-빔 제작 설치 | 이동식 주택및 팬션 | 전통한옥 철골조 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징


양촌 법계사 신중탱화(동)

양촌 법계사 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신비의 인도산 자수정
새봄 행운의 보석 단주와 목걸이 수입

혈액순환.기억력증진.어깨통증에 효과
살아숨쉬는1등급자수정.목에걸면 눈피로없어
살아있어 행운과 건강을 주는 보석이라는 인도산 자수정이 국내 처음 반입됐다. 자수정은 본초강목(本草綱目)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을 치료하는 보석으로 대체의학에 이용된다. 생명 친화적 파장은 수백만(32786KHZ)의 규칙적인 에너지를 자동으로 방출한다. 따라서 자수정이 내뿜는 생기는 체내의 유해독소는 제거시키고 몸의 반란스를 잡아주어 잠재파워를 향상시킨다. 천연 자수정은 저온에서도 다량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하여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킨다고 기록되어있다.
금번 반입된 자수정은 1등급으로 색상과 크기를 일정하게 가공한 단주와 목걸이 세트로 목에 걸고 다니면 세번되고 품위 있는 보석으로 혈액순환, 기억력 증진,어깨통증,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 가격은 58.000원으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특급등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 / 전화 (02)734-7300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가지산 호랑이…아직 생생한 목소리

전국비구니 초대총재 인홍 스님 일대기 '길 찾아 길 떠나다' 입적 10주기 맞아 나와



1996년의 인홍 스님. 주명덕씨의 사진



4월 24일 석남사에서 봉행된 인홍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제에는 원로 중진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제공=김민숙 사진작가

지금으로부터 2천 6백여 년 전,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 문 앞에서 일흔 다섯 살의 노파가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다. 노파의 뒤에는 샤카족 여인 5백여 명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노파는 바로 부처님을 양육해준 이모 마하파자파티였다. 5백여 명의 여인들과 함께 출가를 하기 위해 기원정사를 찾았고 부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완강했다. 여자는 출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 뜻이었다. 마하파자파티도 완고했다. 출가하여 무상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5년 전 부처님이 이미 '거절'했음에도 식을 줄 몰랐고 다시 출가를 간청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은 것이다.

결국 부처님은 마하파자파티의 강한 열망과 아난의 간청으로 여자들의 출가를 허락한다. 그러나 '8경계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다.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친 비구니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철마 스님의 이름이 높다. 9세기 중반 이후 활동 한 철마 스님은 위산영우 스님의 회상에서 수행했다. 선지가 높고 기개가 강해 비구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큰 걸음을 놓았다. 철마 스님의 행적은 벽암록 제24칙 '철마도위산(鐵磨到潙山)'이란 화두로 전한다. 또 조주와 함께 남전보원의 법을 이은 자호 선사와도 법거량을 멋지게 했는데 자호 선사가 철마 스님의 뺨을 후려갈기는 대목이 압권이다.

우리나라의 비구니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을 숨겨 주었던 모례(毛禮) 장자의 누이 사씨가 비구니로서의 첫 기록이다. 백제의 선승 법명(法名) 스님은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를 전파했다. 고려 시대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문도 가운데에는 종민 청원 요연 희원 등의 비구니 스님들이 1213년 수선사 안거에 참석했다고 <진각국사어록>에 전한다. 나옹 화상의 제자 가운데서도 화엄 스님이 이름을 드러낸 것으로 전한다.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불교정화'로 이어지는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태산거목 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이 함께 했던 것이다.

인홍(仁弘, 1908~1997) 스님의 한 생애는 근 현대 한국불교사에 겹쳐져 있다. 조선조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 온 불교가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으로 새로운 시련을 겪고 다시 민족적 시련 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할 때 비구니 승단의 위상을 세우는데 언제나 앞장섰던 스님이 인홍 스님이다. 불교전문 작가 박원자씨가 인홍 스님의 생애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길 찾아 길 떠나다>(김영사, 1만3000원)는 인홍 스님의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한국불교의 근현대사이기도 하다. 자신에게나 후학들에게 엄격하여 '가지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스님의 일생은 치열했다. <길 찾아 길 떠나다>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불필 본각 스님 등 후학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실렸으며 각종 기록들도 포괄적으로 인용되어 인홍 스님의 생애와 불교 근현대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인홍 스님의 후학들이 근현대 한국 비구니의 사표를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한국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의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구니 스님의 위상을 세운 인홍 스님의 일생을 통해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이 더 올곧게 이어지길 바라는 속내다.

비구 승단에 '봉암사 결사'가 있었다면 비구니 승단에는 '성주사 결사'가 있었다. 이 두 결사는 한국 불교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수행불교' '정법불교' 운동이다. 성주사 결사는 1951년 8월 인홍 스님을 주축으로 한 4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봉암사 결사'(1947년)의 정신을 이어 정진일념을 실현했던 큰 불사였다. 이어 인홍 스님은 태백산 흥제사 등에서도 간단없는 수행을 했고 가지산 석남사를 중창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인홍 스님은 성철 스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성수 스님 일타 스님 등과도 토굴 수행을 함께 했다. '불교정화'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활동했고 가지산 석남사를 중창하느라 손발이 닳도록 일을 했다. 인홍 스님의 한 생애는 구도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숭고한 것인가를 한 눈에 보여준다.

<길 찾아 길 떠나다>의 가치는 출간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4쇄를 돌파한 발행 기록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중국인' 얼마나 아시나요?



패의 중국인 양의 중국인
가토 도루 지음
한명희 옮김
수학재 | 1만2000원

"중국인이란 무엇인가?"이 의문에 대한 참신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시선이 이 책에 들어 있다. 중국인은 유전자적으로 패의 기질과 양의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점을 전제로 하여 역사, 문화, 인구, 지정학 등 여러 갈래에 걸쳐 중국인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난다. 중국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안으로서,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본 히로시마대 조교수인 저자는 중국인의 기질을 장사꾼의 재주와 현실주의적 측면을 뜻하는 '패'(貝), 유교로 상징되는 이념성은 '양'(羊)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했다.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던 은나라는 농경민족으로서 '패'의 기질을 가졌다. 반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는 하늘을 두려워해 엄격한 의식을 지켰으며 양을 제물로 바쳤다.

김주일 기자

노자사상의 핵심은 '지금의 삶'



노자-생명의 철학
왕방웅 지음
천병돈 옮김
작은이야기 | 1만5000원

이 책은 30여년간 대학에서 노자를 가르쳐온 저자가 '노자철학'의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도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

저자는 "노자의 '도'는 우리 인간 곁에 있고, 우리 생활속에 있으며, 바로 우리마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노자사상의 핵심은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다. 즉 유한한 생명이라는 존재론적 사실로부터 무한으로 통하는 '무위(無爲)'의 실천 방법을 통해 생명의 본래 모습인 질박 혹은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 존재의 고통은 유위, 유지, 유욕에서 온다고 보았다"고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끝내주는 비유…가슴에 새기는 교훈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98가지의 비유/백유경
지원 스님 지음
부글 | 1만1000원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뱀의 머리와 꼬리는 늘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머리가 앞에서 먼저 움직이려고 하자 꼬리가 나뭇가지를 휘감고 버텼습니다. 하는 수 없이 머리가 양보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꼬리가 앞서 가다가 불구덩이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뱀의 머리와 꼬리가 다툰 이야기중에서)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음에 관한 것들이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 자신을 닦는 수양을 게을리 하는 사람,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는 사람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김주일 기자

반 고흐 정신세계에 젖은 라데팡스에서의 시간들



라데팡스의 불빛
맹난자 지음
수필과비평사
1만원

<에세이문학> 발행인 맹란자 대표는 2000년 5월 프랑스 파리의 교외 라데팡스에 있었다.

상젤리제 대로의 개선문을 빠져 나와 뒤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 그랑드 아르메 대로를 지나 센 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라데팡스 지역이다. 이곳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저자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집이 있는 파리 북부 오베르를 찾는다.

저자와 고흐와의 첫 인연은 4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의 대학시절 일본 문고 판화집에 있는 '슬픔'이란 제목의 그림을 통해서 였다. 무릎 위에 팔장을 끼고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늙은 나부의 연필스케치였는데 암컷의 비애를 느끼던 그림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반 고흐의 집을 방문하며 그의 체취를 들여마신 저자는 마을의 공동묘지에 있는 고흐의 묘소로 향한다. 몇 년전 세계 유명문학가들의 묘지를 찾아 쓴 감회를 적은 '묘지기행'의 작가답게 고흐의 묘지에서도 역시 저자는 많은 상상에 잠긴다.

이 책은 라데팡스의 추억뿐만 아니라 저자가 '어머니' '서정주' '오상순' 등 삶 속에서 혹은 문학기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과 단상을 특유의 간결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기술해 놓았다. 삶과 죽음, 몸과 욕망의 다양한 소재가 노장과 불교적 사유로 깊이를 더 해주는 글들이 가득해 책장을 덮고나도 한동안 많은 사색에 잠기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4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5	직관	아잔 수메도	대한불교진흥원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8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활안	휴먼앤북스
9	곰게 늙는 절집	심인보	지안
10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불교 꽃꽂이 35년 맞은 지연 스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꽂이 展' 열어

법련사 불일미술관/5월 1 일~2일

花心이 곧 佛心

"꽃과 마주대하고 있노라면 항상 부처님 품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 피어있는 꽃들은 저에게 부처님과 같은 존재죠 "

꽃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35년 동안 전하며 세상을 화엄법계로 만들어가는 스님이 있다. 누구하나 알아주는 곳 없던 척박한 환경의 불교 꽃꽂이계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문화포교에 헌신해온 한국불교꽃꽂이의 원조(?) 지연 스님(보림꽃예술중앙회장 · 기원사 한주 · 사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연 스님은 5월 1~2일 양일간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꽂이전' 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보림꽃예술중앙회 창립 20주년과 기원사 창건 30주년 및 불교꽃꽂이 입문 3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35년간 동양적 꽃꽂이 알리기 앞장
오방색에 은은한 자연의 미 연출 특징
"전통과 현대 접목한 작품 연구 할 것"

"이번 전시는 지난 4월말 출간된 책 <한국 꽃 예술과 불교>에 등장한 작품 70여점을 선별해 선보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국내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꽃꽂이를 비교한 책들이 거의 없다기에 동양 꽃꽂이 의 기초 작품부터 응용, 창작에 이르기 까지 1백여 작품을 만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번 책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원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연 스님이 불교꽃꽂이를 하며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수해 온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동양적인 꽃꽂이만 한다는 것이다. 전통사찰이 많은 우리나라 불교계 실정으로는 크고 화려한 서양식 꽃꽂이는 전혀 안 어울린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도심 포교당에는 서양 꽃꽂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국사찰에는 정적인 동양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역시 동양식 꽃꽂이가 잘 어울리지요."

동양 꽃꽂이는 기초 방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고 스님은 말한다. 또한 꽃도 오방색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선과 여백의 미를 강조한다. 지연 스님이 꽃꽂이를 할 때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오히려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은은하며 아름다운 꽃 본래의 미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고 지연 스님은 설명한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분야를 일으켜 세우는 데엔 꼭 구비돼야할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며 두 번째는 대내외적 평가를 듣는 기회인 발표(전시),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인 출판물 출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연 스님은 10년간 봉녕사 승가대학에서 강의해 왔으며,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원 강의도 30년 동안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 또한 네 권의 출판 작업을 통해 불교꽃꽂이를 단순한 불교의례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좀 더 격조 있는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전시회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20여회 이상 했지만 정작 스님의 개인 전시회는 이번이 고작 네 번째다.

이렇게 평생을 꽃과 함께 살며 꽃을 다듬고 정성껏 꽂는 마음, 즉 화심이 곧 불심이라는 신념으로 불교 꽃꽂이를 개척해온 지연 스님의 노력은 의식 꽃꽂이의 전형으로 불교 꽃꽂이의 위상을 높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참뜻을 담은 불교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꽃꽂이를 재창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⑪



그림: 이상배 화백

지리산 구층암

장인성 시인

하늘과 제일루 가깝게 지내는 지리산 천왕봉이 제 몸뚱이 가운데 사타구니쯤 되는 탱탱한 자리를 석석삼년 하루갈이 다듬고 문질러 큼지막한 절간 하나 세워놓고 이르기를 물고 뜯고 아귀다툽하는 인간들을 꽃처럼 보살피라 하시며 화엄(華嚴)이란 이름을 새겨놓고는 절간의 납자(衲子)부터 제도하라고 화엄사가 빤히 내려 보이는 뒷마당 언덕배기 높직한 곳에 찡찡한 즉비 하나 꽂아둔 것이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이라네요.

구층암(九層庵)-화엄사 부속암자로 큰 절 뒤편에 있다.

불교적 주제 서양악기로 들으면 어떨까?

니르바나 봉축 연주회/11일 KBS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5월 11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KBS홀에서 봉축기념 연주회를 개최한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김의정 ·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최하는 이 연주회는 '나눔으로 실천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현재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장문학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음악회는 계절감각에 맞게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등으로 문을 연다. 이어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와 쇼스타코비치 재즈모음곡 No 2 제4곡 '왈츠' 등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경쾌한 곡들이 연주된다.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인 작곡가 지원석씨의 클래식 창작곡 '싯다르타를 위한 오케스트라 모음곡' 연주다. 이 곡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기존곡들과는 달리 부처의 탄생 이전인 도솔천에서부터 잉태돼 탄생하시는 과정을 조명했다. 이 곡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부처-도솔천에서 기다리며'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마야비의 태에 들다)' '무우수 나무아래서(드디어 세상에 태어나다)'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번 곡은 불교적인 주제를 서양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등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이번 음악회에서는 최성환 편곡 '아리랑', 방수미의 판소리 '낙성가', 단소 연주자 이용구의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등이 연주된다. (02)718-4599. 김주일 기자

제2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제22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일정이 공고됐다. 회화, 공예, 조각 등의 부문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이번 불미전은 8월 21일까지 접수 받으며, 대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및 전국 교구본사에서 배부한다. 수상자 발표는 8월 26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다. www.buddhism.or.kr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⑧

불교음악 대중화·대형화 시기

1990년대 초

1990년대 불교음악의 특징은 음악의 대중화, 공연의 대형화, 조직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91년 불교방송 개국으로 불교음악이 방송을 통해 불자들에게 불교음악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신작 찬불가 100곡을 만드는 등 창작 작업에도 참여해 질적 향상을 꿰하기도 했다. 신작 찬불가 중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호라 꽃잎이여' '일천강에 비치는 달' 등이 이때 나온 곡들로 지금도 불자들에게 많이 불리고 있는 애창곡들이다. 불교음악의 활성화가 서서히 달아오르자 변규백, 이길상 선생은 찬불가를 발전시키는데 한 뭇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창작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길상 선생의 타계로 작업이 중지된 것을 큰 아쉬움이었다.

92년 음악제때 관객 넘쳐 대관 금지도
불교음악동인회 930여곡 찬불가 출간

제3세대 불교음악동인회는 91년 정부기 교수, 이건호, 이태호, 반영규 씨와 필자가 참석해 설립했다. 불교음악동인회는 불교음악의 연구와 창작, 공연, 불교음악출판 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동인회는 '3세대 불교명상음악 작곡발표회'와 연주곡집을 발간하면서 91년 4월 20일 호암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후 92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붓다의 노래'(정부기 작곡, 김효경 작사), 93년 '붓다의 노래' 앵콜공연, 94년 '94불교음악의 대향연'(작곡:김동환 정부기 박이제 김회경)은 96년 까지 매년 개최했다. 97년부터는 한국불교음악협회와 삼보불교음악협회로 협회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활동해 오고 있다. 92년 제2회 음악제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공연장 불이 꺼져 시설 관리자에게 이유를 묻자 "밖에 공연을 보러 4천여 명이 몰려왔는데 수용 인원이 1천 3백석 밖에 안 되니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밖에 나와 보니 엄청난 인원이 몰려와 있었다. 그래서 1부, 2부를 나눠 관객을 바꿔가며 연주회를 하기도 했다.

제3세대 불교음악동인회는 불교음악을 한 자리에 총 집합한 <찬불가 전집>을 93년 8권 1질 930여곡을 수록해 출간했다.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은 93년 8월 '대한불교 소년. 소녀합창단 창단'(단장 남강수)을 50명의 단원으로 구성해 건전한 불교음악을 통한 청소년 포교와 찬불가 부르기 운동 등을 펼쳤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두 번째 음성공양

'L.M.B. 싱어즈' 찬불가 출시

찬불가 포교 중창단인 'L.M.B. 싱어즈'(사진)가 봉축을 앞두고 지난 4월말 두 번째 음반을 냈다. 이번 앨범에는 '거룩하신 삼보' '발심의 노래' '영겁을 하루같이' 등 찬불가 19곡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시조시인 정완영 선생의 '왕생극락의 노래'와 나옹스님의 유명한 시 '청산은 나를 보고' 등은 일반인들에게도 가사말이 친근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사랑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1999년 창단된 'L.M.B. 싱어즈'는 창단 취지에 걸맞게 8년동안 군법당 교도소 법원 고아원 등 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오페라 교성곡 민요가곡 가요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음성포교에 앞장서 왔다. 김주일 기자

해병대 포교 기금마련 설봉스님 도예전

백자앞에서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랴!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웠으랴!
어둑한 가마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너의 싱싱한 숨소리가
가마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굳은듯 떨리는 두 손이
감히 너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넋을 풀어 놓고 주저 앉아 있을 때
너는 한 점 더러움 모르는
하얀 가슴으로 나를 안고
혼탁한 세상 점잖게 밀치며
가마 밖으로 나왔다.
밤새 심술부리던 바람도 고개 숙였고,
아침 햇살도 놀라 너의 넉넉한 어깨위에서
토닥토닥 뛰었다.
시리도록 하이얀 너의 신비로움에 밀려
하늘도 자꾸만 멀어지기만 하던 날
너는 내가 한점의 티끌임을 알게 해준
스승일레라

설봉 합장



'07년 5월 9일 13~15시까지

다보성 갤러리 종로 경운동 수운회관 3층 전시실 TEL 02)730_7566

초대합니다

숨막힐 듯이 정적이 감도는 철책선
나라를 지키는 젊은 부처님들의
눈동자 빛나는 곳
여기가 바로 나의 법당입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에게 불공을 드리려
오늘도 초코파이 자루와 커피통을 짊어지고
최 전방 초소를 찾아 갑니다.
그 젊은 부처님들 만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라고 다짐하며
젊고 푸르런 불교만을 그림 그리면서
이 한생이 다할 때까지
마른땅에 물젖어 들듯이
소리없이 그들만을 찾아가기 위하여
해병대 포교기금 마련 도예전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자리를 빛내 주시옵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삼보에 귀의 하오며

무애산인 설봉 합장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6. 선종의 사구게(2)

선종의 사구게는 어느 경전에 출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구게의 근거는 <능가경>권3에 '일자불설(一字不說)'과 <대품반야경> 권7의 '일자불설' 혹은 '무자무설(無字無說)' 등에 나타난다. 석가모니의 처음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초기 선종의 이슈였다. 곧 불교의 근본정신에 복귀하자는 실천불교로서 황매현 쌍봉산 일대와 강서, 호남 지방의 산사에서 일어난 대중적인 불교운동이다.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다 (敎外別傳)

가르침 밖에 특별히 전할 것이 있는가가 문제다. 사실 별로 다르게 전할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을 전할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선을 공부하고 선시를 이해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명제다. 3조 승찬도 그의 <심신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분별하고 선택하는 마음만 꺼릴 뿐이니 단지 미워하고 좋아하는 양변의 견해만 버리면 대낮처럼 뚜렷하고 환해진다(至道無難 惟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고 노래하듯이 있는 그대로 평상심을 벗어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경>의 선화를 음미해보자.

> "스스로의 본래면목을 돌이켜 비춰보면
> 비밀함은 도리어 그대 자신에게 있다"
> 분별없는 평상심 그대로가 조사의 입각처

이야기는 이렇다.

5조가 노행자에게 비밀히 의발을 전했다는 것을 듣고 진혜명은 동지 수십 명을 데리고 대유령에 이르러, 혜능을 먼저 발견하였다. 노행자는 혜명이 오는 것을 보고 의발을 돌 위에다 던지면서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 어찌 힘으로 다투겠는가.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제가 온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오. 옷을 위한 것이 아니니 행자는 저에게 일러 주시오."

"그럼 모든 연(緣)을 다 버리고 한 생각도 내지 마시오. 내 말하리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할 때, 어떤 것이 상좌의 본래면목인가?"(不思善 不思惡 正與麼 時 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

이 말을 들은 혜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몇 차례 절하고 물었다.

"그 외에 조사께서 보이신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스스로의 본래면목을 돌이켜 비쳐보면 비밀함은 도리어 그대 자신에게 있다."(與汝說者 卽非密也 汝若返照 密左汝邊)

"저가 비록 오래 동안 황매에 있었으나 사실은 아직도 자신의 본래면목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 마치 스스로 물을 마셔 보고 차고 더운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육조단경> '오법전의'. <전등록>권4)

흔히 지식을 선가에서는 알음알이라 한다. 머리 하나만 이해되고 통달되어 아는 기술적 지식과는 달리 선적체험은 정신적 지혜와 육체적 경험, 머리와 마음을 모두 통하여 증장(增長)시킴을 의미한다.

이 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량분별(思量分別)하지 않는 평상심 그대로가 조사들의 입각처(立脚處)다.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전할 것이 없는 것을 전하니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 한다.

이 소식을 단하순이 염하였다.

선조들이 남을 위하던 방법 전혀 수긍할 수 없구나. 看他先祖爲人 終不肯
이리 오너라, 여러분은 알겠는가?
過這邊來諸人還會麼
별 뜨기 전에 나선 사람 천봉우리 틈에 누었으니 星前人臥千峯室
불조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구나, 했다. 佛祖無因識得渠
(<선문염송>28칙 '본래면목')

착어 : 불조는 불조니까 알지 못한다. 히!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❼

해인으로 가는 길

도종환 | 문학동네 | 7000원





모과나무 꽃순이 나무껍질을 열고 나오려고 속에서 입술을 움질움질거리는 걸 바라보다 봄이 따뜻한 부리로 톡톡 쪼며 지나간다
봄의 줄탁
곰이 간 봉오리마다 좁쌀알만한 몸을 내미는 꽃들 앵두나무 자두나무 산벚나무 꽃들 몸을 비틀며 알에서 깨어나오는 걸 바라본다
내일은 부활절

시골교회 낡은 자주색 지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저녁 햇살이 몸을 풀고 앉아 하루 종일 자기가 일한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 '봄의 줄탁' 전문

깊이 · 입체의 삶으로 가는 '길' 찾기

이 시집은 도종환 시인이 최근 세 해 동안 산속에 흙집을 짓고 병든 몸을 치유하면서 쓴 시들의 결과물이다. 시집의 뒤에 '산방에서 보내는 편지'가 게재되어 산에 들어간 동기와 산에서 생활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산에 들어간 이유는 "몸이 정지신호를 보내 육신을 쓰러뜨렸기 때문"이고, 이는 몸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경고"였다는 것이다. 그 세 해 동안 시인은 자신이 "정지해 있었고 괄호 속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을 "빈 밭처럼 내버려" 둔, 이 정지와 공백과 생략의 시간에 '화엄'에서 '해인'으로 깊어진다. 여기저기 분주하고 번잡했던 길이의 삶 평면의 삶에서 깊이의 삶 입체의 삶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표제시 '해인으로 가는 길'이 그렇다.

화엄을 나섰으나 아직 해인에 이르지 못하였다 / 해인으로 가는 길에 물소리 좋아 / 숲 아랫길로 들었더니 나뭇잎 소리 바람 소리다 / 그래도 신을 벗고 바람이 나뭇잎과 쌓은 / 중중연기 그 질긴 업을 풀었다 맺었다 하는 소리에 / 발을 담그고 앉아 있다 / 지난 몇 십 년 화엄의 마당에서 나무들과 함께 / 숲을 이루며 한 세월 벅차고 즐거웠으나 / 심신에 병이 들어 쫓기듯 해인을 찾아간다 / 애초에 해인에서 출발하였으니 돌아가는 길이 낯설지는 않다 (후략)

– '해인으로 가는 길' 전문

화자는 화엄에서 몇 십 년을 벅차고 즐겁게 살다가 심신에 병이 들어서 해인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본래는 해인에서 출발하였으니 다시 해인으로 가는 길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해인에서 경계에 걸리지 않아 무장무애하게 되면 다시 화엄으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화자가 말하는 화엄과 해인의 거리는 '지척'이다. "화엄으로 휘몰아치기 직전이 해인"인 것이다. 그렇다, 해인에서 화엄으로 가는 거리, 화엄에서 해인에 이르는 거리는 순간이다. 순간이라는 거리도 없다. 그는 산에 살면서 차나무를 심고, 별을 세며 장작을 쪼개고 불빛 옆에서 시를 읽었다. 이러한 산중 생활을 하면서 "그냥 고요하게" 살면서 "나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도 내 몸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러나 자신의 산중 생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신 하나만의 온기와 허기를 메우기 위한 삶, 도피하는 삶에 대한 우려를 한다. 그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시대의 의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며 세상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의 지난 산중 생활은 시대와 깊은 줄탁을 위한 수련기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봄의 줄탁'에서 형상화 된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❼ 명이 밀전병 말이

불자님들은 혹시 '명이'라는 나물을 아십니까? 명이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나 오대산, 설악산 같은 높은 지대와 울릉도에 자생하고 있는 산나물입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명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이는 장 효과가 높은 산채로 '멩이나물' '신선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멩이'라는 별명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울릉도로 이주한 100여명이 겨울동안 육지에서 가져간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때 눈을 뚫고 돋아난 명이를 발견하고, 이것으로 3개월여 정도의 긴 겨울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을 구한 식물이라 하여 '멩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명' '맹'이라 불렸다고 하는군요. 또한 일본에서는 명이를 수도승이 고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얻기 위하여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명이는 오대산 상원사나 설악산 신흥사를 비롯한 강원도의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기력을 돕기 위해 귀하게 여기며 먹는 산나물입니다. 상원사에서 전하는 일화에 따르며, 한 노스님께서 기력이 너무 없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때 어린 동자승을 불러 땅 속에 묻어 두었던 장아찌를 알려주어 스님이 드시게 했는데, 그 후 원기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노스님이 '신선초'라 불렀던 것이 바로 명이였던 것이죠.

기력 회복에 탁월해 '신선초'라 불려
독특한 향 입맛 자극, 비타민 등 풍부

명이는 잔설이 있는 이른 봄에 새순이 돋아나는데, 잎이 3매 이상 완전히 전개됐을 때 뜯어 나물로 이용합니다. 독특한 향이 있어 입맛을 자극하고 무기성분,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우수한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자양강장효과가 높고 몇 가지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효과 및 인체 내 비타민 B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 명이는 염장이나 장아찌, 묵나물 등 저장식품으로 이용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명이 요리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명이를 데쳐 두부를 으깨 참기름, 깨소금, 된장으로 간을 맞춰 나물로 먹습니다. 또 명이 잎을 초간장에 절여 두었다가 익으면 꺼내 밥을 싸먹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을 묻혀 튀겨 먹기도 하고, 죽순이나 표고버섯과 함께 볶아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이를 밀전병에 말아 된장소스에 찍어 먹는 '명이 밀전병 말이'를 만들어 봅니다.



명이 밀전병 말이

재료: 명이, 잣, 된장, 막걸리, 밀가루

① 명이는 싱싱한 것을 골라 씻어 겉껍질을 벗기고 밑둥을 깨끗이 다듬는다.
② 잣은 곱게 다져서 된장, 막걸리를 넣고 되직하게 만든다.
③ 밀가루는 물을 넣고 개어 얄팍하고 둥글게 전병을 부친다.
④ 밀전병을 펴서 명이를 올려놓고 돌돌 말아 접시에 예쁘게 담고 잣을 뿌린 된장을 곁들여 낸다.

봉 축

풍주선원 제2대 김덕일 주지스님 진산식

귀의 삼보하옵고,
성하의 계절에 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청정 전통선맥을 이어가고 있는 풍주선원장 제2대 김덕일 스님의 진산식에 소중한 인연을 모십니다. 여러가지 도전과 극복과정을 걸쳐 수행하는 도량, 정진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놓으신 큰스님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진산식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또한 범추당 정수 대화상 부도탑 제막식과 유고집 출판 기념 법회도 함께 봉행합니다.

◆ 일시 : 불기 2551(2007)년 5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풍주사 관음전
◆ 문의 : 종무소 043)256-5585, 258-3199



재단법인 선학원 충북교구본사 고령산 풍주선원

2007년 제 5회 가침박달꽃축제

화장사에서는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수목 가침박달나무가 약 만여평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침박달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북 임실군 관촌지구 보다 그 규모면에서 약 10배가 넘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가침보존회는 청주를 대표하는 생태,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 사 내 용

1 2007년 4월 26일 – 명암타워 가침박달나무 학술세미나
2 2007년 4월 30일 – 화장사 초의차문화 충북지부 다도시음대회
3 2007년 5월 4일 2시 – 화장사 전통음식 발굴 경연대회 및 사찰음식 시연대회
4 2007년 5월 5일 – 어린이날 행사, 사진전시회, 꽃씨뿌리기, 야생화 심기, 그림그리기
5 2007년 5월 24일 – 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 행사

◆ 문 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29-4번지 ☎ 043)255-5758
◆ 주 최 : 가침보존회, 가침박달꽃축제 준비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
◆ 후 원 : 청주시, 청주불교방송, 화제신문,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CJB방송



대한불교조계종 화장사 가침보존회

"산사와 트로트의 이색만남"
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

제3회 트롯 산사 음악회

관음사에서는 매년 사월초파일 밤마다 '트로트'를 주제로 봉축음악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중화된 음악 장르인 트롯트를 조용한 산사에서 흥겹게 승화시켜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청주불교방송 특집공개방송이 계획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 일 시 : 2007년 5월 24일(사월초파일) 오후 8시
■ 장 소 :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스님)
■ 주 관 : 청주불교방송, 관음사 신도회
■ 프로그램 : 사회-염경환(개그맨)
♠ 초대가수 – 현진우(대표곡 '빈손' '고로해서')
최유나(대표곡 '반지' '별난사람')
진요근(대표곡 '아니야' '불효'), 황혜린(트롯 신동)
♠ 출연가수 – 이상아, 단주 등 지역가수
♠ 찬조출연 – 관음사 약사회원, 어린이 발리댄스 시범단

〈봉축사진전〉
● 기 간 : 불기 2551년 5월 17일 부터 5월 24일까지
● 개막식 : 불기 2550년 5월 17일 오전 11시
● 장 소 : 관음사 천불전
● 문 의 : 관음사 종무소(043-256-6254) 주지스님(011-358-7786)
www.gwanum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 관음사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 ~ 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49재 · 천도재 · 불상 · 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전통무용)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
(홈페이지:www.천도재.kr)
051)557-1130
011-482-2091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연꽃 분양
논이나 큰 다라에도 가능
하며 심어도 드립니다
분양보시금 전액은
불사 시주금으로 사용됩니다
010-2511-1188

육효 기문 사주

사주(일진법)	5월29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5월30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5월31일(목)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6월 1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 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 강의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빙의 현상, 신끼, 무병, 정신질환, 두통, 알콜중독, 만성질환등
재물을 차린지 않고 초능력의 힘 기(氣)로써 빙의된 조상이나 태아, 타인영가, 잡귀신등 몸이 고달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고 치료함
특별한 능력을 갖춘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55)261-1230
011-586-6091

역 학 강 의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 문 원 서
051)523-8425
010-3667-8425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秘 法 전 수
뭇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충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체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모십니다
· 공양주보살
· 찻집보살
· 종무원(남 · 여불문)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청암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1)202-8770
www.달마.kr

연꽃그림주문
사월초파일 각종보시용
한지나 다포에 원하는그림,
글씨 크기로
연꽃그림 전문 서화가
018-588-5698

퇴마 영혼을 치유합니다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불사나 보시하실 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옛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활동적이고 능력있고 신심 돈독한 60대 독신 거사님을 불자도반으로 모십니다
010-3348-4242

일시적으로 천도의식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저렴한 보시에 여법하게 봉사함
(세납 60세, 법납 30년된 비구)
011-9429-5786

지리산 암자에서 공양주를 모십니다
▷60세 전후
011-614-1763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9491-9227

운전기사 모십니다
(대형면허자격증 소지자우대)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의왕시
031)459-3666

사찰에서 근무하실 처사님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수 100만원(보너스별도)
▷월 2일 휴무
011-9571-6479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산중 태고종 사찰
기도 및 가람수호 하실 분
011-722-3418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591-8228
042)271-624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진천
016-9883-5525

기 도 스 님
(비구스님)
공양주보살님
모 십 니 다
041)836-50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비구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50세 이하)
054)976-81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60대 부부환영
기도 하시면서 생활도 가능
(강원도 강릉)
033)661-58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11-820-3046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비구) 스님 염불잘하시는 스님
011-854-4960

평생도반 신심으로 수행중인 을미생 비구승입니다 함께 정진하며 수행하실 인연 기다립니다
018-406-3073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 방사있습니다
(실비약간)
02)353-02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2)298-9911

참신한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유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친숙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자(예비스님)모집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9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buddhapia.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평 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임대 : 3000/25

● 위치 : 경남
● 법당 : 24평
● 요사 : 169평
● 부지 : 5600평
● 가액 : 19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목조로 된 사찰 이전 및 인수하실분

● 법당, 요사, 종각, 석불, 석조, 약사여래불, 해수관음불
● 조경 자연석, 30년생 동백나무 300그루
※인연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054)776-6005
054)776-1754
010-9214-0561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 태평동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
● 평수 40평, 3층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미륵동불,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탱화
● 에어컨 및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가액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3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8억3천

● 위치 : 경기도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전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130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법당 : 조립식 15평, 요사1동, 사무실1
● 보증금 없이 연240만원 가액없음, 설비일체 3천만원
● 특징 : 역학 보유자 최적지

010-7156-4855

포교원(임법당)안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온양터미널 5분거리)
● 대지:60평, 건평25평(방3, 욕실)
● 삼존불 봉안, 시설일체완비
● 가액 : 9천 5백만원 (전세1700만원포함)

041)533-0853
010-3011-0853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근처 양산
● 대지 : 700평
● 법당 : 35평, 지하법당 40평
납골당 1500기
요사, 방사 10호실
● 산자락속의 마을 도량 정리 완벽
● 가액 : 7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 ~ 20억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경전철 공사중)
● 산세 절경인 시내지역
● 교통요지

011-391-739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00평, 밭 350평
1층 요사채 30평
2층 법당 30평(단청 완벽)
● 삼성각 25평, 요사채 27.5평
조립식 20평, 시설완벽
● 석탑, 석불(미륵존불 2분)
● 가액 6억원

016-204-1668

포교원(암자) 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 대지 약200평, 법당 20평 1동(삼존불)
● 건평 : 요사채 60평(적벽돌 스라브) 1동
● 가액 : 2억1천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010-5883-5005
011-9877-7913

포교당 및 철학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삼존불, 탱화, 신중, 산신, 영단완비
● 전세 30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1-857-660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4거리
● 평수: 50평(3층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1, 작은방1, 창고, 주방 및 거실 있음
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법당 엠프시설, 법당과 큰방 에어컨 설치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손 볼 곳 없음)

011-9000-6311
053)290-631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 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370평, 건평 30평
● 신축1동, 구옥 1동
● 국도 인접, 개울물 흐름
● 가액 : 1억3천만원

010-2880-9856
054)873-864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현대식 건물
● 부지 100평 건물 180평
● 가액 : 9억5천

※관심있는 분 전화문의바람

011-860-1228

암자 하실분 명당터 안내

●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옆
●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천봉산과 달맞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명당터
● 대지:205평, 300평, 456평
건물:40평, 25평
● 7000만원 가격 협의

043)732-8285
010-3545-9992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가 1억4천5백만원)

연락처 011-820-4617

산속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산사
● 내 절처럼 관리하고, 부처님 전법을 수행하며 사실 스님을 찾습니다
● 대웅전1동, 산신각1동
용왕전1동, 요사채 2동, 방 7칸
● 전세 : 1억
돈이 부족하신분께 월세 가능

033)661-9992
011-422-0086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요사채(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밑 남원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2,000평
● 대웅전 20평, 별채 20평,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조립식) 50평, 심야전기보일러
● 특징 : 송림이 울창하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
● 가액 : 2억5천만원(전,월세가능)

063)625-9992
011-411-0503

암자(포교원)안내

● 위치:밀양 무안 국도변 위치
● 대지 : 약200평, 법당 20평 1동
● 건평 : 요사채 60평 (적조 슬라브) 1동
● 태양열, 단독 지하수 완비
사찰 살림 가구 일절
● 가액 : 2억 1천만원 (은행융자 7천만원포함)

055)356-6777
010-5883-5005

웰빙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 대지 : 406평, 전 : 716평
● 100평 건물내에 안법당 1, 큰방4개, 주방(식당) 1, 샤워장1, 수세식화장실1, 창고1
● 양도가 : 7천만원 (절충가능)
산촌마을 조용한 별장같은 암자이며 포장도로이고 500평 밭에 대추나무200주, 가시오가피300주, 헛개나무,산뽕나무,인진쑥, 노나무(개오동)등이 심어져있음

054)683-6426
011-9159-5904

비구니스님이 기도정진 하던 오랜 작은암자안내

앞마당에 실개천이 흐르고 뒷산에 날다람쥐가 살고있는 조용하면서도 외롭지 않은곳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 현재 개보수중임
● 가액:1,500~2,000만원
● 시설:법당, 요사채 일체 갖추어져 있음
● 토지:년임대30만원

011-378-597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2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대전에서 20분거리)
● 대지 200평
● 건물:신축법당 20평 (삼존불,108나한 봉안) 요사채 2동(구옥)
● 가액: 1억 4천만원

※ 급한 사정으로 제가 양도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부동산 사절)

011-486-1275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2000만원
가격절충가능

031)405-4181
010-6321-1639

포교원 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 스라브 15평
● 양도가 : 1억1천만원 (전세도 가능함)
● 주인보살 직접
● 절충가능

011-9423-6788

어렵게 시작하는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 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
(일요일 답사)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정동진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
● 넓은 텃밭 모든시설완비

011-9918-52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 시내
● 건물 45평(3층)
● 보증금 300만원, 월42만원
시설비 500만원
● 법당 시설완비

055)333-436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상가3층
● 평수 : 70평
● 법당, 삼존불, 산신각, 화장실, 주방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011-252-61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시 근교
● 법당 : 20평 요사채, 식당, 산신각
● 대지 전임야 1,2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011-540-3313

사찰(급)안내

●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 대지: 237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등 3동 (돌 미륵부처님, 사리탑 모셔져있음)
● 가액 : 2천만원, 시설비 3천9백만원 (합 5천9백만원)
●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합니다)

064)799-5617
010-6215-878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의성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넓은 정원, 각종 유실수, 텃밭
● 보증금 300만원/ 년 300만원

017-813-9126

토 굴 안 내 (임법당 안내)

● 위치 : 충남 웅천
● 대지 : 약70평
● 특징 : 임법당1, 방1, 주방1, 입식화장실
● 가액 : 1천만원

011-653-7801

대구 팔공산 청정도량

창건불사중인 청정도량터로 창건불사를 꼭 하고 싶은 고귀한 인연에 보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현 시가 15억 물건을 반가격으로 취득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주인직통)
010-4512-081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통영
● 법당 신축건물(52평)1동 외5포, 내7포
● 총공사 투자금 10억 건물을 가액 3억으로 양도하려함

011-804-1748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포교당 안내

● 위치: 창원시(창원역부근)
● 법당, 삼존불, 공양간 완벽조성 2층 50평
● 전세 1천만원, 월세 55만원

055)299-3536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 일정 :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 출발 : 매주 목요일
◆ 경비 :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칭짱열차)
◆ 일정 : 부산-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2)-부산
◆ 출발 : 매주 월,목요일
◆ 경비 :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 일정 : 인천-성도(1)-라싸(2)-장체-시가체(1)-라사(2)-성도(1)-인천
◆ 출발 : 매주 수요일
◆ 경비 :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항주 8일
◆ 일정 : 인천-상해-수주-항주(1)-구화산(1)-황산(2)-항주(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 매주 목요일
◆ 경비 :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 일정 :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 매주 월, 수, 토요일
◆ 경비 : 649,000원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 055)741-9999, 팩스 742-444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갑천면
● 총평수 : 343평
가액 : 5천만원
● 땅 230평
가액 : 5천만원

010-9267-33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747-91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실사용평수 20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창고 8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만경읍
● 대지 400평,밭(田) 100평
● 임법당 건물 60평+15평 최신식 건물
● 가액 : 1억2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1-677-3769

탈 종 공 고

● 성 명 : 오이섭
● 법 명 : 법정(法正)
● 주 소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113번지 연화사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情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빼곡한 5월이다. 하지만 각종 기념일을 챙기느라 여기저기 신경 쓰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정작 중요한 '가족'은 뒷전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의 달'인 5월, 부모님과 자녀의 손을 잡고 가까운 사찰이나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가 보자.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가정의 달' 불교계 행사 풍성

내 가족이 '부처님' 입니다

사생대회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 동요제를 권할 만하다. 5월 20일 오전 10시 용궁사 내에선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전래놀이 한마당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055)354-4464 사회복지법인 범어사가 운영하는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9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제2회 어린이 동요제'**를 개최한다. 지역 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8일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051)532-0115



안성 도피안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내 환희지와 선혜지 등의 연못에서 진행된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물고기를 방생한 후 생태학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참가비는 한 가족 당 1만원.(031)676-8700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운영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서관 대탐험'과 '마술쇼와 함께 하는 인형극'**을 개최한다.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 도서관 대탐험'은 5월 4일 도서관 내 어린이자료실에서 도서관 관련 퀴즈,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진행된다. 5월 12일 도서관 지하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마술쇼와 함께 하는 인형극'은 온 가족이 함께 마술쇼와 인형극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의 달에 '효 문화 실천'과 '가정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효 글쓰기 공모전'도 열려 자녀들의 글솜씨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02)385-1671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4일에는 어린이날 축하 케이크를, 5월 7일에는 어버이날 **감사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좌**를 개최한다. 8~10세 어린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없고 재료비 8천원만 내면 된다.(02)985-0161.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일 오후 1시부터 지역 어린이 200명과 함께 옥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푸른 한마당'**을 펼친다. 댄스와 풍물패 공연,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 가족과 함께하는 2인 3각 등이 펼쳐진다. 5월 6일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능동 어린이대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떠난다. (02)2282-1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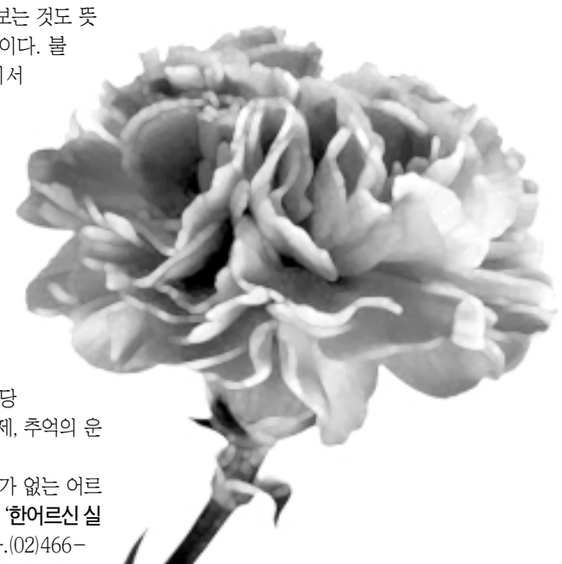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에 취미가 있는 자녀라면 **밀양 용궁사**가 개최하는 **어린이** 날을 맞아 각종 기념식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광진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5월 8일에는 지역의 무의탁어르신들을 위한 **'칠·팔순잔치'**를 마련해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열고 선물도 증정한다. 11일에는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제4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축제, 추억의 운동회를 개최한다.

한편 광진노인복지관은 19일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들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제4회 **'한어르신 실버미팅'**을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한다.(02)466-6242 **성북노인종합복지관**도 5월 17일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미팅을 준비했다. 만 60세 이상의 서울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 1만원.(02)921-6090

부산 지역 불교계 복지관들도 어버이날 맞이 행사를 준비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5월 8일 효 큰잔치를 개최한다.(051) 866-0454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관 옆 주차장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 분을 모시고 **제13회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노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느껴볼 수 있다.(051)893-5034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3일 지역 내 65세 어르신 90분을 모시고 **진주 천곡사로 경로관광**을 떠난다. 참가비 1만원. 5월 4일 오후 3시 복지관 강당에서는 지역 아동들의 율동과 게임을 볼 수 있는 새싹들의 큰잔치를 연다. 어버이날인 8일에는 복지관 사랑방에서 지역 어르신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한다.(051)363-206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 가정 지킴이' 강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행복한 가정 꾸리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행복 가정 지킴이' 강좌를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가정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강의로 꾸려진다. 5월 29일 오전 11시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리는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수업이 진행된다. 김연화 사무국장(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하고 행복한 나와 가족', 백경임 교수(동국대 가정학과)의 '행복으로 가는 가정수행공동체', 우승택 PB(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의 '여성이 이끄는 가정경제'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국장은 "가족 간의 대화법과 경영 리더십을 배움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정 해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결혼 20년차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선착순 40명 모집. 참가비 1만원.(02)722-2102 여수령 기자



35. 다성 센노리큐

일본인들은 전통문화를 창시하거나 집대성한 사람의 기념일에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 초상화나 상(像)에 절을 하고 추모하는 관습이 있다. 센노리큐(1522~1591) 기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와 인연이 있는 차도구를 모아 기념 차회를 여는데, 어떤 기념일보다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것은 센노리큐가 다도 보급에 많은 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기백과 정신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 일본은 분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런 사회에서 센노리큐는 차를 마시는 방법을 통해 정신성을 고양하고자 했다. 차 마시는 방법을 다도(茶道)로 정리하여 규격화된 다실을 만들었다. 다실의 크기는 다다미 2장반(대략 한 평이 조금 넘음)의 크기로 표준을 삼고 실내는 아주 정갈하다. 손님이 앉는 위치에서 화로와 꽃꽂이와 도코노마에 족자 등을 설치한다. 실내의 출입구는 아주 작게 만들어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외형은 초가로 중간에는 두꺼운 나무로 기둥을 하고 지붕 위에는 대나무와 풀로 덮어서 만든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교훈적인 의미이며,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다실은 소박함 속에 긴장감이 있다.

다실 입구는 석등, 담장, 로지, 세수간 등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고요한 아취를 느끼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된 규칙을 지키게 하여 평화로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인과 손님은 차를 마시면서 좋은 글을 생각하고 아주 조용한 기분으로 빠져들게 한다. 규범적인 도(道)를 중시하는 사상이 의식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차탕(茶湯)의 새로운 표현으로 정신, 수양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다도(茶道)라는 말이 생겼다. 즉 정신적 내면화에 가치를 두는 미의식이 싹트는 시기로 호화롭기보다는 소박하고, 완벽하기보다는 결함이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였다. 다실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존경심을 유발하여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계급이 높은 사람도 다도 중에는 소박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센노리큐는 당시 자기 민족의 화합과 서로간의 존경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일본 치도(治道)의 기본정신을 다도(茶道)를 통하여 찾고

센노리큐, 다도 정리 및 규격화된 다실 완성
엄격한 형식 현실사회와 융합 위해 정식화



일본의 다성 센노리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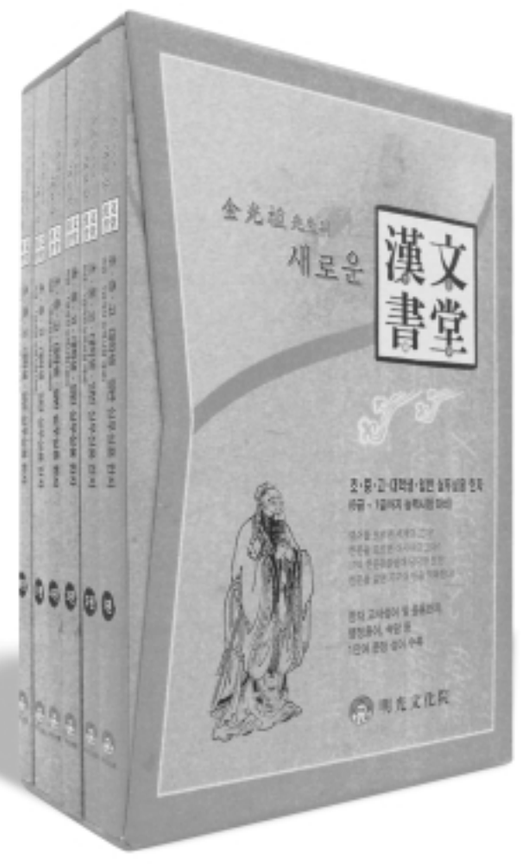
반성을 하게 한 것이다. 서로 사상이 통하고 맑고 고요한(淸寂) 상태에서 더러움과 외견을 없애고 화합과 공경심(和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신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센노리큐는 특정한 분위기를 갖춘 다실을 만들었다.

전쟁과 폭력이 화경(和敬)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듯 그의 활복은 당시의 사회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일본의 다도는 창조되는 시기와 과정 중에 피(血)의 대가를 치렀다. 다도는 센노리큐 이후에 독특한 격식이 만들어져 더욱 발전됐다. 하지만 형식상 엄격한 조건과 사제지간에만 가르치는 방법, 직계가족에게만 가르쳐 주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한되었다. 이런 정신은 일본의 현실사회와 융합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후에 일본은 다도를 정식화하여 보급에 노력하였고 센노리큐의 다도는 최대의 유파로 전해지고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전화 02)737-0695 / 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조건없는 사랑만이 지옥에서 해방

불화 속의 명장면 (27)

지옥세계(하) : 日 교토 지은원소장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



그림1 · 2 :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한 이들이 가는 중합(衆合)지옥, 일본 교토 지은원소장 '지장보살본원경변상도'의 부분

휘영청 푸른 달과 그 주변을 가득 수놓은 금강석 별들이 영롱히 비치는 해인삼매(海印三昧)의 바다가 아니라, 분노로 활활 끓어오르는 불바다이다/ 보드라운 숨결과도 같은 금은(金銀) 모래사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 빽빽이 돋친 철산이다/ 잿빛 번뇌를 씻어버리는 청량한 미풍(微風)이 아니라, 뜨거운 쇳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불길이다/ 무지개빛 극락조의 천상의 운율이 아니라, 살려달 라 울부짖는 절규의 아우성이다/ 따스한 봄 날씨 같은 관음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라, 염라대왕의 냉혹한 죽음의 판결이다/ 성불(成佛)로의 길 밝히는 구원의 등불이 아니라, 칠흑 같은 암흑 속 번득이는 야차의 어금니이다/ 산호 수정 진주 아름열매의 칠보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몸이 쇠로 된 뱀과 개가 불을 토하며 종횡무진 내닫는 천길 쇠담장이다/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달래는 청량 감로수(甘露水)가 아니라, 영겁토록 뜨거운 철환을 삼키고 뜨거운 구리쇳물을 마셔야한다/ 금빛찬연 눈부신 아미타의 무량광(無量光)이 아니라, 적의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확탕(鑊湯)지옥 검은 연기이다/ 비상할 것만 같은 벅차오르는 환희심이 아니라, 천근 무게의 몸을 끌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흑암(黑暗) 미로이다/ 삼라만상 영롱히 밝히는 불성(佛性)의 인드라 망(網)이 아니라, 옴쭉달싹 조여드는 철수갑 철사슬이다.



그림3 : 말로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발설(拔舌)지옥

인간은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그물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고 이 여섯 세계를 돌고 또 돈다고 한다. 천계, 인간계, 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의 육도 중 지옥은 가장 바닥 중 바닥의 장소이다.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의 상태 즉 미혹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의 미계(迷界)가 바로 우리의 현주소, 차안(此岸)이라면, 이 육도윤회의 상태를 벗어나 생사(生死)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가 피안(彼岸)이다. 그런데 이 경지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라기보다, 생사에 '초연'한 경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태어나면 누구나 다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삶의 많은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생은 매번 당혹스럽다.

이러한 혼돈스런 차안에서 피안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불도수행(佛道修行)이고, 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사는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다. 즉 '인생(人生)'이란 곧 피안을 지향하는 '수행(修行)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란 이러한 수행을 위한 '교육'이다. 또 부처님은, '삼계도사(三界導師) 사생자부(四生慈父) · 시아본사(是我本師)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란 예불문 문구 그대로, 미혹한 삼계의 중생을 이끄는 스승(三界導師), 우리의 위대한 스승(是我本師), 즉 우리를 지도하는 대교육자(The Great Teacher)가 된다.

각양각색의 상태에 있는 중생의 다양한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고 또 이들을 이끌어 지도하고 구제하기위해, 많은 여래와 보살들이 방편(方便)의 묘(妙)를 살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출현하여, 불교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제불능의 장소가 있다. 지옥이다.

'지옥(地獄)'은 산스크리트어 '나라카(Naraka)'를 의역한 말인데, 이를 음역하면 '나락'이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보통 '나락에 떨어지다', '나락에 빠지다'라고 말한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나락 즉 지옥에 떨어지면 수천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한다. 극락(極樂)의 반대인 극고(極苦)의 장소. 이 지옥의 묘사가 매우 생생하게 펼쳐지는 <왕생요집>(일본 헤이안시대 승려 원신源信이 찬술한 것으로, 일본 정토교 형성의 초석이 된 경전)에는 지옥에 대한 구제는 일체 설해져 있지 않다.



그림1

부처님의 손길 닿지 않는 구제불능의 장소
인간이 저지른 끊임없는 악업 때문에 계속 늘어
구업사계 지키지 않는 사람 '발설지옥' 벌 받아

물론, 이 나락 속의 영혼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지장보살이 성불마저 포기하고 세운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대본원(大本願)이다. 이 지장보살에게 부처님은 자신 대신에 '가없는 몸을 지옥에 나타내어 지옥문을 부수고 그곳의 중생을 천상에 태어나게 하라'고 부촉한다.

인간이 저지르는 끊임없는 악업에 따라 우후죽순식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지옥이기에 지옥의 수는 끝이 없다고 한다. 수많은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은 지옥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무간지옥(혹은 아비지옥, 아비는 산스크리트어 Avici의 음역)은 '무간(無間)'이라는 뜻대로 '사이가 없다' '끊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밤낮으로 받는 벌이 영겁토록 끊이지 않으므로 · 죄업의 인간으로 가득하므로 · 나유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끊이지 않으므로 · 백천 겁에 이르도록 하루낮 하룻밤 만 번 죽고 또 만 번 살아 잠시의 쉴 사이도 없으므로(지장본원경)', 이를 무간지옥이라고 일컫는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속인 것이다.

고통이 극에 달한 죄인들이 끊임없이 울부짖는 곳을 규환(叫喚)지옥이라 하는데, 이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합하여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지옥들은 <구사론>(인도 세친 저술, 4세기경, 대승 및 소승불교의 기초학 제공하는 귀중한 문헌)에서 팔열(八熱)지옥 속에 포함되기도 한다. <구사론>에는 주로 팔열지옥과 이에 대응되는 팔한(八寒)지옥의 종류가 설해져있다. 그 외, 고독(孤獨)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산, 들판, 허공 등에 시와 때가 없이 지은 업에 따라 존재하는 소지옥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바로 이 고독지옥에 갇혀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장시왕탱 또는 시왕탱의 하단에서 자주 발견하는 지옥으로, 우선 발설(拔舌)지옥이 있다.(그림3) 이는 죄인의 혀를 뽑아 소가 그 위에서 쟁기를 끌도록 하여 밭 갈듯 혀를 가는 고통을 주는 지옥이다. 이는 구업(口業) 즉 말로 지은 업장이 두터운 이가 받는 벌인데, '이간하는 두 가지 말을 말라 · 망령된 거짓말을 하지 말라 · 절대 남에게 추악한 언사를 쓰지 말라 · 절대 남에게 가식 있는 말을 말라'의 구업사계(口業四戒)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받는 벌이다. 가장 흔히 또 쉽게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업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확탕(鑊湯)지옥의 역시 자주 눈에 띠는데, 죄인을 철창에 꿰어 불가마솥에 넣어 펄펄 끓이는 장면이다.(그림4) 주로 파계한 이들이 받는 고통이다. 또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한 사람들은 철산 사이에 가두어 놓고 눌러 압사시키는 형벌을 받는데, 이는 협산(夾山) 또는 중합(衆合)지옥의 광경이다.(그림1,2)



그림4 : 파계한 이들이 가는 확탕(鑊湯)지옥

그 외에도 죄인의 온몸에 못을 박는 정철(釘鐵)지옥, 나무에 죄인을 묶고 톱으로 몸을 써는 거해(鋸解)지옥, 칼산에 갇히는 도산(刀山) 또는 검수(劍樹)지옥, 차디찬 얼음산의 한빙(寒氷)지옥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고통에서 중생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지장보살의 무차별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 대지(大地)를 품는 크고도 위력적인 사랑만이 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욕심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라!

형제 법우님들, 앞으로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계발해서 천체를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스스로, 근본으로부터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절실한 일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비유해서 조그마한 티끌만도 못한 것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한 처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의사 셋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몸에 꽂은 거 다 빼고 죽든지 살든지 나갑시다." 하니까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조건! 무조건 말입니다. 이유는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그랬느냐? 상원사(上院寺)를 지을 때에도 그랬었지만 뭐든지 무조건이지 거기는 이유가 붙는 자리가 아니다 이 소립니다. 무슨, 어려워서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됐네 이런 게 붙으면 그건 진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란, 여러분의 법이란, 그 묘하고 슬기롭고 진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샛별같이 떠지고 한생각은 불끈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솟는 그 무조건적인 생각! 예, 이런 것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때, 마음속에서 정말 절절한 눈물을 흘리지만 눈은 생동생동하게 더 똥그랗게 떠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이러한 그 '무조건'의 생각, 그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지'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주인공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관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져야 알 겁니다, 아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게 관(觀)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꼭 해야만 하겠다 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수련 재료이자 바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여여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무조건! 망상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놨지 누가 망상이라고 지어 놨겠습니까? 그것에 왜 흔들립니까?

줄창 말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수억겁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쓸리고 저기에 쓸리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속눈썹하고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언젠가 한 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요새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만 끄달려 포기를 해 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백혈병이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뼛속으로 썩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수에 전부 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벌레가 뼈를 긁어 먹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병원을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진찰을 해 봐도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뼛속을 긁어 먹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그거는 긁어 먹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감기 조금 들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습니다.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고
같이 공생 · 공식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처님 법이 아니랴!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한 거니까 무조건, 이건 절대로 이런 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주 작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저 원주 소초면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집을 팔고 땅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나중엔 정말이지 남의 행랑채에 들어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방편상 그렇게 한 거죠. 이 부처님 법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약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야, 감자 한 관 살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감자 한 관에 2천 원이래요. 그래 2천 원어치를 사 가지고 가서, 갈아서 즙을 내서 거기에 미숫가루를 멀겋게 타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맛있게 해 먹으려면 누런 설탕 사다가 가미해서 그냥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었죠. 자식들은 칠 형제나 되고, 쉰 살에 또 늦게 아들을 낳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고 쉰 살에, 늦게 낳은 그 아들의 덕을 보고 지금까지도 사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리송한 게 부처님 법입니다. 아주 정말이지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끔 한 처사님한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보이는 세계에 나오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진을 쳐 놓고선 "안 돼!" 하면 아예 그냥 못을 콱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시면서) 쳐 놓는 거와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있죠. 왜? (한숨을 내쉬시고)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 사람이 죽고 살고, 또는 '여기 믿으러 다녔는데 안 고쳐져서 어떡하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 못을 박는, 정말이지 굵은 불바퀴를 그냥 콱 (주먹을 쥐어 내리쳐 보이시면서) 박는 그 마음은, 아마도 이 세상 다 없어진대도 그건 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참답게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법신(法身)이요 불부처요 산 부처요, 여러분이 화신(化身)이요 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도 붙지 않고, 이론도 붙지 않고, 더한다 덜한다, 이게 옳다 그르다도 붙지 않고, 가난하다 또는 부자다도 붙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다도 붙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 뼈저린, 아주 진한, 바닷물을 다 모아서 한 방울이 되는 그 피 한 방울이 말해줍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그저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은 한없이 쏟아지고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어서 보이진 못하나마 눈이 생동생동하게 떠지면서 기둥이 와짝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섰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정신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채 한생각을 내서 둥글려서 모든 걸 해 나가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융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무 느낀 점이 많은데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재료를 많이 부어서 막 흘러내려서 부작용이 나 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이 주인이 돼서 살 때, 그리고 그 밑으로 밑으로 내내 선맥(禪脈)이 끊어지지 않고 끝간 데 없이 이어지도록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법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학술적으로 하지 않고, 경전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딴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고 이심전심으로 전달하고, 같이 공생(共生)을 하고 공식(共食)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처님 법이고 무엇이 부처님 법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와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호텔을 정해서 설법을 한다 하고 기별을 하니 심지어는 가톨릭교 신부나 목사도 모입디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나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롭게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 나쁘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해 봐야 이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잘났으며 이 고깃덩어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골수는, 여러분의 누진(漏盡)으로서 오신통(五神通)을, 법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으며, 불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이 마음이 천백억화신으로, 분신으로 화해서 바깥으로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들락거리면서 이걸로 쓸 거는 이걸로 쓰고, 저걸로 쓸 거는 저걸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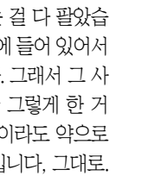
또 이 지구만 해도 이 안의 세계를 위하여 지구 바깥으로 세 개의 소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지구 바깥에 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계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네들의 마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네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고 하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 있는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혹성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이 입자를 통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는 세 가지 소임을 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단계 단계 단계…,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그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임을 맡은 단계입니다. 안으로 들이고 바깥으로 내는 소임, 안으로 바깥으로 전부 통신하는 소임, 그리고 책정을 하는 소임, 세 가지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내는 것만 보더라도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남극 북극에서 그 소임을 하면서 들이고 내기 때문입니다. 남극이 똥 누는 데라면 북극은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쁜 건 내놓고 좋은 건 들여놓듯이, 지금 인간 혹성 자체가 그렇게 살듯 지구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네들 마음 자체의 보이지 않는 입자, 즉 말하자면 화신들이, 내 몸뚱이도 보호하려니까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아니 인간에겐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섯 단계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 잡아당기는 것과 끌려들어 가는 것의 양면을 다 책정을 잘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성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여놓을 건 들이고 내놓을 건 내놔야만 하는 작업도 있죠. 이 허공에도 지금 세균성이 그냥 욱시글득시글하니까요,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유전성으로 온다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연에 따라서 들입다 침입을 하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임신을 했어도 임신한 그 자체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애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감인데도 소통령도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세계 정신세계의 노예로서 산다 이 겁니다. 우린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레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

☞22면으로 계속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 도량석 조석종성
● 예 경 편 :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명부.관음전 등)
● 불 공 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지장,신중청 등)
● 재 의 식 :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 도량게 운심게
● 시식과정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개강일자 : 2007년 6월 5일
(범패반 :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 화요일 오후 5시)
◈ 강 의 일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21면에서 계속

선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네 정신 네가 가지고 있고, 네 주인공 네가 가지고 있으니…." 그 소린 뭐냐 하면, 네 주장자가 있다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지 않았다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들락날락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었기 때문에 수없는 게 들락거리면서 네 집을 망가뜨리느니라, 이랬거든.

그러니 네 기둥이 없는데 내 기둥을, 네 기둥이 없는데 내 주장자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 집이 비었는데. 네 집이 비지 않고 주인이 있다면 내 주인을 너를 줄 것이로되, 줘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일을 크게 할 텐데, 네가 집이 비어 가지고 네 마음에 주장자가 없는데 내 주장자를 어떻게 너에게 한데 합쳐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 네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그저 깡패니 뭐니,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전부 그냥 드나들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그 의식도 드나들기 때문에 집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못할 거며, 또 집이 먼저 망가지면 내가 나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으로 고행을 하지 말고 정신 수행을 하라 하신 거죠. 정신 수행으로서 진짜로 들고 나는 데에 누가 하는가, 네가 하는 것을 알라, 몸은 사대가 돼서 흩어지고 말지만 이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간 데없이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중생을 살리고 수많은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는 걸 알라고 하셨죠. 그 말은 '위로는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에 한 부처니라. 그러니 평발 한발로 디뎠느니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을 고렇게까지는 안 하셨어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을 본다면 거기에 그냥 탁탁 들어가 박혀 있어, 아주. 글자 아닌 글자를 아주 거기에다 똑똑 박아 넣었다고.

엊그저께 어느 스님이 "왜 『반야심경』을 그렇게 풀이해서 미국에 가서까지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다가 써서 우리 발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조곤조곤 차근차근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참 잘 읽는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죠. (대중 웃음) 그랬는데 아, 그것도 흉인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 스님더러 그랬어요.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경전을 보고 지금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때 시절에 트럭이 있었겠느냐, 짐차가 있었겠느냐, 짐차라는 이름이 있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긴데, 그때 만약에 지게꾼이 있었다면 "지게꾼!" 하고 불러야 그땐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짐차 트럭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전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짐차를 불러야 하는 지금 시절과 지게꾼 부르던 그 시절이 다른데 지금도 그럼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불러야만 하느냐? 그럼 트럭 운전수는 대답도 안 합니다, 지게꾼을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부르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이 옳소! 참, 우리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 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고는 그만두더군요, 허허허…. (대중 웃음)

오늘은 이렇게 설법하는 날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뜻이, 법이, 중용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날인데 나 혼자만 지껄여서, 지껄인다고 그래야 돼요. 하하하….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그러니 질문들을, 청년회도 그렇고 모두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1(남):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법형제님들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법형제님들이 정말 스님 말씀과 같이 정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늘상 그 자리고 늘상 제자리인 것만 같아 답답하여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것은 습에 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습이 붙을 자리도, 업이 붙을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생은 몇 억겁을 거치면서 습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습이 쌓여 가지고 어떻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습이 붙어 가지고 이생에 와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큰 깨침을 얻으셨다는 어른들께서도 끝까지 그 습이 남아 가지고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그 습의 행동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가르침 받자옵고자 합니다.

▲스님: 그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깁니까? (대중 웃음) 첫째는, 무조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소리 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악으로다 뺄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고 이따 죽으면 어떻고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참! 이 세상 이 길, 그냥 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왜 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야! 이거 뭐 캠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 이럴지언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사판이에요. (대중 웃음) 두 가지뿐이야.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모르고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갓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둥우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거 가엾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 만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 그래서 무량심이에요. 일심(一心)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라.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 염불하다 보면 벌써 다 늦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에다 탁,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답답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을 두면 그 아들이 장관도 못하겠다! 장관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이 세상 이 길!
그냥 걸을 뿐!
그냥 살 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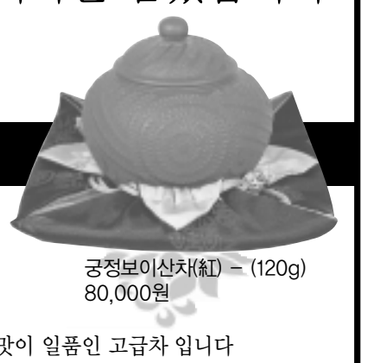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 주문전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불자 세상보기

윤 창 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책값은 아깝고 술값은 '펑펑'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세계 책의 날'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 또 불교인들은 몇 권 정도의 불서를 읽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 순위는 세계 1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지난 22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06) 신문이나 잡지, 학습참고서 등을 뺀 순수한 책 구입비는 가구당 한 달에 7631원이었다(오락에는 10만 원, 술마시는 데 5만 6000원 정도 쓴다고 한다). 평균 책값이 권 당 11,500원 정도라고 볼 경우 가구당 월 독서량은 0.66권 정도이고, 연간으로는 8권 정도이다. 한 가구당 어른이 두 명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의 연간 독서량은 4권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인들의 불서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 1년 동안 나오는 불교서적 신간은 350종 쯤 된다. 한 책당 평균 2쇄(약 4천권)를 발행한다면 약 140만권이다. 그리고 이미 구간으로 유통되고 있는 책이 약 1천 5백 종이 되는데, 한 종당 1년에 약 700권이 나간다면 105만권이다. 모두 합하면 약 245만권 정도이다. 그 외 법보시 등을 합하여 아무리 후덕하게 산출해도 300만권은 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우리나라 불자를 1000만(통계청 및 불교계 산출)으로 본다면 그 중 절반, 즉 500만은 어른이다. 500만 명이 300만 권을 읽는다면 불교인들의 연간 불교서적 독서량은 0.6권 남짓으로 채 한 권도 안 된다. 우리 불자들이 1년 동안 부처님 말씀이나 사상, 가르침이 담긴 불서를 사는 데 쓰는 돈은 많아야 7~8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커피 두 잔 정도의 값이고 담배 3갑, 한 끼 식사 값이다. 10년 전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연간 약 12권을 읽는다고 한다. 불교인 독서량의 열 배가 넘었다. 물론 이런 통계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사치는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하위(166위)의 독서율을 기록하고, 불교인들은 여타 종교인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을 읽지 않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책을 읽지 않는 우리네 국민성과 경전이나 책을 경시하는 한국불교의 잘못된 풍조에 기인한다. 책을 읽으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다. 어찌 책을 읽으면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말이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수행을 잘못 지도하고 있는 선각자들의 탓은 아닐까? 선불교 일변도의 왜곡된 가치관이고 깨달음 지상주의의 폐해이다.

독서는 무지(無知)를 추방한다. 인격을 완성하고 어리석음을 추방한다.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 즉 '무지'라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한다. 요즘은 돈을 벌려고 해도 경제 관련서적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무지를 추방하는데 1년에 돈 만원도 안 써서야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무지는 지식과 지혜로 추방해야 한다. 지혜는 책을 읽어야 생긴다.

불서가 없는 불자 가정은 부처님의 법음이 없는 집이다. 가정마다 '불서 108권 장서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를 생활화하자. 불교인들도 올해에는 책 좀 읽자. 유흥이나 오락에 치중하지 말고 불서를 읽는 데 시간을 배려하자. 내 영혼을 위해서이다. 불서를 선물하자. '108권 장서 갖추기 운동'에 총무원, 포교원이 나서야 한다. 언론도 나서야 한다. 지식인과 저자, 불교출판인들은 모두 분기해야 한다. 이것이 탄탄한 불자를 만드는 길이다. 책을 읽는 한 우리 불교는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9. 종교폭력 법적 책임 묻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학교내 종교폭력 민형사 처벌 대상… 인사 불이익 줘야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부모와 같거나 그 이상의 존재다.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종교적 차별대우는 학생들의 어린 시절을 어둡게 할 수 있기에 어른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식을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사에 대해 웬만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아니, 문제 삼을 수 없다. 그것은 아이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다. 선생님과 학생의 이러한 특수 관계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유증이 크고 오래 간다.

문제 발생 시 학생의 전학이나 교사의 전근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것인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가해자인 교사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대로 남아 있고, 종교가 다른 게 무슨 죄라고 학생과 그 가족은 전학과 이사로 또 다른 번잡함과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또 문제의 교사를 전근시키는 경우도 학교로서는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 또한 상황의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 옮겨간 학교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감옥 갔다 와 별을 단 민주 투사라도 된 것처럼 오히려 같은 종교를 믿는 다른 교사들의 무언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되풀이하면 또 전근을 시킬 것인가.

종교재단이 설립한 초중등학교에서는 편향적 언행 말고도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다. 극소수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상식을 넘어선 종교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와 달리 중고등학생쯤 되면 단순한 타종교 폄하나 개종권유에 크게 상처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면 마음 속 깊이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은 뻔하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즉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 '이단 믿으면 안 된다'며 가톨릭 신자인 학생이 갖고 있는 십자가나 묵주를 빼앗아 박살을 내기도 하고, 성경책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 구타 등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자 학생들에게 제 돈으로 성경을 구입하여 들고 다니라 하고, 또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하다니….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큰 죄인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얘기란 말인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기독교인에게 불경을 들고 다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인권문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면 간단히 풀린다.



종립학교 학생들이 참선에 앞서 강당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종교를 이유로 폭력까지 휘두르는 학교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식이 안 통하는 종교적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반되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까지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중단시킬 유일한 수단은 결국 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길뿐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종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들은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와 함께 인사기록으로 남겨 차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게 하고, 도를 넘거나 반복되는 경우 아예 해임 또는 교사 자격 박탈로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

그러나 종교인권에 관한 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교육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이다. 정신적 · 육체적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 어쩌면 미성년자인 학생의 법적 책임자인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소송을 통해 보상과 함께 사법적 판례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물론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일은 우리 사회의 정서상 너무 힘든 일이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그 길밖에 없다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학교 내에서 종교인권 유린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공교육현장에서의 비교육적 · 반종교적 폭력 행위를 근절시키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에 고발도 하고 하소연도 해 보지만, 묵묵부답 우이독경이다. 자기 자식에 직접 피해만 없으면 눈감아버리고 마는 우리 어른들의 이기주의적 습성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폭력은 의외로 가까이 있으며, 언제라도 내 자식이 그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과 관심만이 종교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는 밝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대장경'의 가르침을 배우자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골수다.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설하신 가르침과 부처님 이후의 역대 스승들이 남긴 귀한 말씀들이 팔만대장경이다. 선불교에서는 문자에 얽매여 자성을 못 보는 것을 경계하지만 경전이 없이는 진리를 전할 방법 또한 얻을 수 없다. 여러 수행 방편이 병존하는 한국불교에 있어 팔만대장경은 매우 귀한 종교적 자산이다.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진 '진리의 말씀들'은 불자들에게 밝은 등불이기 때문이다.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에 대한 대중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제로 주요 경전의 핵심을 배울 수 있는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를 개설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본지와 교종본찰 봉선사가 '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를 열어 교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 역시 경전을 통한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고 깨달음의 방향을 일러주는 명징한 시간이 될 것을 믿는다.

3년간 매월 한 가지의 경전을 해설하는 이 법회는 '팔만대장경'을 간직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열린다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해인사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될 수밖에 없는 '법보종찰'의 이미지가 보태짐으로 경전을 이해하려는 불자들에게 더 없는 환희심을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60년 전 '봉암사 결사'의 정신이 '부처님 법대로'였다. 이 법회가 그 정신을 되살리는 큰 걸음이 되도록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병원포교 더 큰 원력 필요

오늘의 한국불교계에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불교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포교'라고 답할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 불교계는 다른 종교계처럼 원활한 포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포교 현장은 늘 허전하다. 계층 포교도 지역포교도 직능포교도 어디 한 군데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허전한 포교 현장에서도 '병원포교'의 일선은 황량하기까지 하다.

중생이 아파하는 곳이 가장 긴요한 포교현장이다. 아픈 중생에게 부처님의 청량법음을 전하는 것보다 확실한 포교가 어디 있겠는가? 진정한 포교는 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4월 24일 개원한 고려대 구로병원의 법당은 지난 해 연말 문을 연 고대 안산병원 법당에 이은 두 번째 법당이다. 지현 스님이 발로 품을 팔아 용품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여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법당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다.

이는 의욕만 있으면 부처님의 법은 어디서나 꽃을 피운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아주 어렵게' 입증해 준 사례라 해야 할 것이다. 왜 그리 어려웠을까? 우리 불교계의 포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스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불법통지"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음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으신 오등선원의 조실 한암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암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짓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현 스님」 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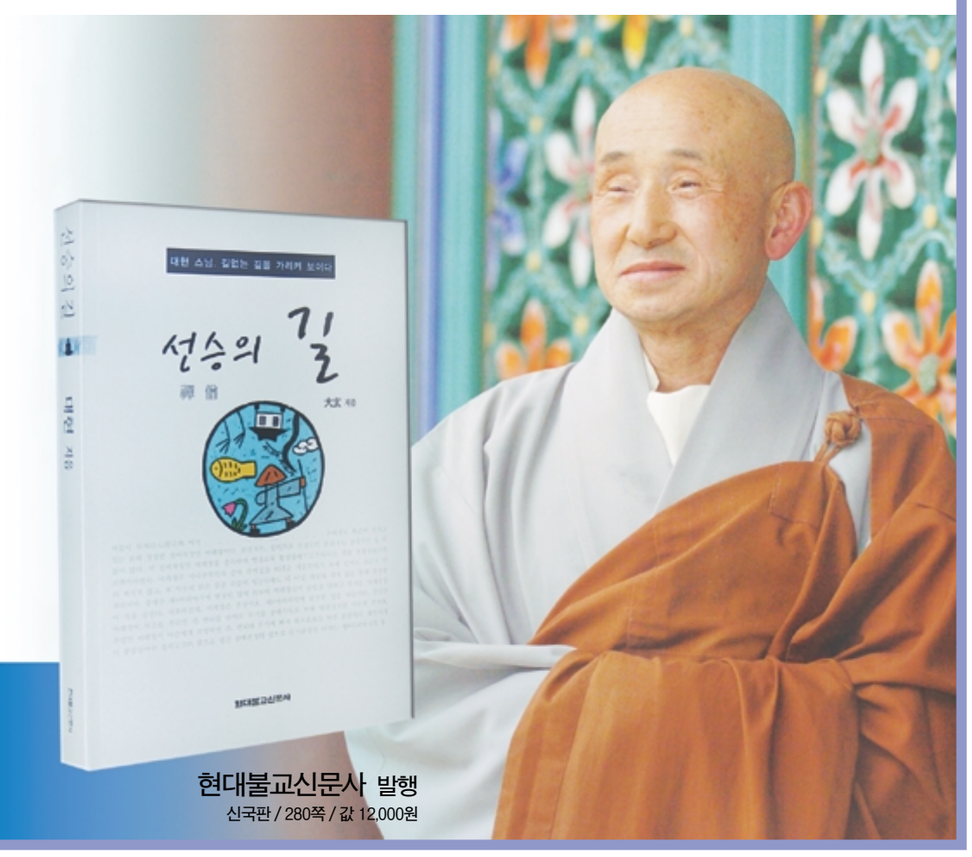
선승禪僧의 길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래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래장심으로 업을 굴린다. 비유하자면 여래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不昧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에게 끄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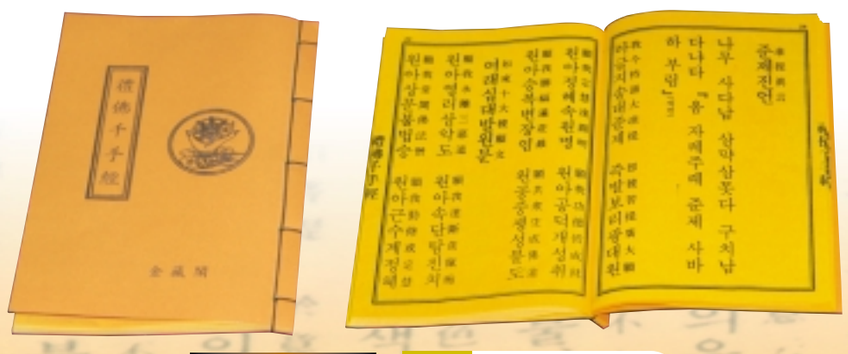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력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시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금장 경전 금장 경전의 이해



천 수 경 가격 ₩9,800

-사이즈 : 13.5㎝×20㎝

부처님 말씀을 실은 경전은 소중하기 이를 데 없지요.
예전엔 경전 얻기가 어려워 금니, 금사경을 하면서 까지 경전에 대한 경외심이 지극하였으나 오늘날은 일반서적 발행하듯이 쉽게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나이다.
이에 미력하나마 우리 불자님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르침에 따라 모든 불자님께서 수승한 수행 정진을 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케 되었나이다.

천불산 성불사 如松 스님 合掌

아미타경 : 장엄염불 5월 10일 출간예정



구입처
순천(금장각) T.061-755-4879
서울(우리불교) T. 02-597-7879
부산(도감선원) T.051-336-5890
대전(우리불교) T.042-256-7879
광주전남(행복한세상) T.061-374-4948